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36 1983년 5월1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y 18,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제2회 청소년예술제

북미대학생컨퍼런스 기금 마련 위해

28일 하오7시30분 하보드고등학교

제2회 청소년예술제가 오는 28일(토) 하오7시30분 하보드 고등학교(Harbord Collegiate Institute)에서 열린다.

작년 10월 한인양로원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한인대학생회(KUSA)가 주동이 되어 개최된 제1회 청소년예술제는, 음악·촌극등으로 꾸며져 400여 관객들을 즐겁게 했고, 일부교민만 보기는 아깝다는 평에 따라 한때 재공연시도까지 있었다. 이에 힘입은 주최측은 청소년예술제를 연례행사로 마련, 그동안 청소년세계와 장년및 노년세대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한인사회에 다소나마 기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16일 정태교 한인대학생회 회장은 금년도 예술제는 8월말 있을 북미한인대학생 컨퍼런스를 위한 기금 마련, 젊은이들의 한인사회 참여의 기회, 젊은이들 끼리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목도모등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KUSA와 KUSA동창회 공동추최로 8월22일부터 27일까지 토론토대 스카보로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제1회 북미한인대학생회의는 한국의 언어·문화·철학·종교등에 관한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북미의 대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이다.

주최측은 동 행사의 총 경비를 3만달러로 책정, 이중 절반은 참가자 등록비로, 나머지 절반은 한인사회의 기부금, 정부의 지원금및 청소년예술제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청소년 예술제의 동원인원은 출연진 30여명, 스탭 20여명, 총 50여명이며 이들중에는 고등학생과 직장인들도 포함돼 있다. 금년행사는 작년과 달리 한인회장, 총영사등 내빈들의 축사는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가벼운 고전음악, 한국팝송, 클래식 기타합주등이 있게 되고, 2부에서는 현대판 「이수일과 심순애」가 흘러간 노래를 중간중간 곁들여 코메디로 엮어진다.

촌극의 각본부터 소품에 이르기까지 전부 젊은이들의 공동작품이다.

후원은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이며 티켓은 5달러씩.

예술제 장소인 하보드 고등학교는 블루어 남쪽인 하보드와 유클릿서쪽에 위치해 있다.

티켓구입은 각 한국식품점및 식당을 통해 가능하다.

"대만대사 만난일 없다"

납치범관련, 외무부해명

(서울 17일=연합) 한국정부는 17일 서울주재 대만대사가 지난 15일 6명의 중공기 납치범들을 면담했다는 대북신문의 서울발 기사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외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납치범들이 대만대사관의 대사는 물론 어떤 직원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북의 유나이티드·데일리신문은 서울발 보도에서 대만대사 서유치씨가 납치범들과 면담, 대만정부와 국민들의 염려를 전달했으며 면담동안 납치범들이 극도로 흥분했었다고 보도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6.04원
CN$1.00 = US81.36센트
금(런던) = $536.19
은(토론토) = $16.00/oz.

"사임하지 않겠다"

퇴임압력받아온 밀러재무장관

◆밀러장관

주예산안중의 일부가 발표4일전 글로브·앤드·메일지에 누설됨으로써 사임압력을 받아온 프랭크·밀러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은 16일 사임치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밀러장관은 법적 전례를 살펴본 결과, 사임의 근거를 발견치 못했으며, 자기의 "양심은 결백"하다고 말했다.

밀러장관은 이같은 발표가 있기전 약10분간 윌리엄·데이비스수상과 요담했다.

데이비스수상은 지난12일 밀러장관에게 그의 사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밀러장관은 사임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가운데 주민 특히 언론의 지지가 주요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글로브·앤드·메일지가 예산안 일부가 새나간 사실이 밝혀지자 토론토·스타, 토론토·선등 3개의 토론토 신문들은 그가 반드시 사임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으며, 래디오, TV방송들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주 밀러장관은 주예산안을 발표, 기업에 세금부담을 완하시키는 반면, 주민의 소득세에 5%의 부가세를 신설한다고 밝혔었다.

社 告

제호위치 변경과

글씨크기의 증가

독자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토론토한국일보의 왼쪽 윗쪽(↖)을 보아주십시요. 〈한국일보〉라는 제호가 거기 있지요?

오늘부터 종래의 오른쪽 윗쪽자리에서 옮긴 것인데 이에따라 달라지는 점은 (1)신문페이지를 넘길때 영자지와 같이 왼쪽 방향으로 넘기며, (2)따라서 신문을 철할때의 머리 방향이 종래와 반대가 됐고, (3)신문이 윤전기에서 나오면서 ¼로 접혀질때 1면 톱기사(머릿기사)부분이 전면으로 나오게 접혀지며(종래에는 광고부분이 앞으로 나옴), (4)이때문에 독자주소가 톱기사 위의 여백부분에 붙여집니다.(종래에는 광고부분 밑에 붙었다)

신문의 톱기사는 제호옆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례이며, 페이지를 넘길때 왼쪽으로 넘기는 것이 추세인 점등을 고려, 제호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다만 본국판 한국일보의 제호 위치는 전과 같으며, 수요일자와 함께 배부되는 주간한국도 변동이 없읍니다. 이것은 이들 간행물이 내려쓰기(종서) 형식으로서, 글줄의 방향이 한문과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 ◇◇◇ ◇◇◇

독자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가정의 벗 토론토한국일보는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40대 후반부터 노년층까지의 독자들을 위해 지난4월14일 부터 글씨의 싸이즈를 약 15%가량 크게해서 읽는데 눈의 피로를 덜게했읍니다. 이제까지 약1달간의 시험기간중 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기때문에 이제 이를 공표하게 되었읍니다. 글자크기 증가는 본국판 한국일보의 싸이즈 증가보다 약 보름이 빠릅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

— 사과말씀 —

본국판 한국일보 13일자(금)와 14일자(토)의 원본이 서울로 부터 공로수송중 분실되어 15일(일)자를 먼저 인쇄했읍니다. 분실 신문은 19일(목)자에 실리게 됩니다.

소설등 연재물을 애독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독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

◆17일밤 토론토 호텔·플라자 II에서 개최된 헤어·디자인 경연대회에서 2등으로 입상한 헤어 디자이너 배청자씨(왼쪽에서 4번째)와 모델로 나온 전인숙씨(왼쪽에서 3번째). 이날 대회에는 16개팀이 출전했다. 배씨는 이날 동양계로서는 유일하게 이 대회에 참가했었다.

관계기사 2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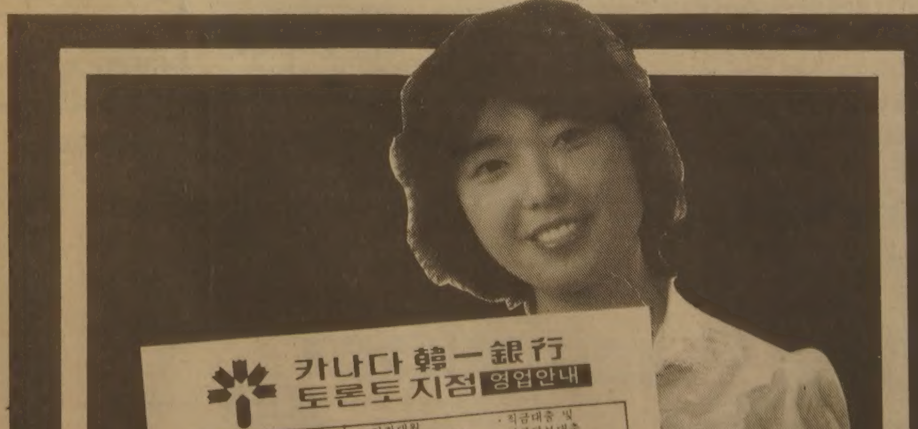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B.536-1692
R.245-1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 C.A.
Chartered Accountant · Comptable Agréé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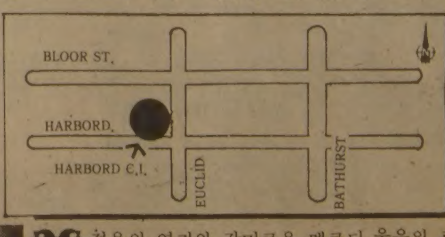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 5147

은하 보석
ROLEX
한국화장품 대리점
교포용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매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제2회 청소년 예술제

□일시 • 1983년5월28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HARBORD 고등학교
□가격 : $5(균일)
□주최 • KUSA
□후원 •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



젊음의 열기와 감미로운 멜로디, 웃음의 광장으로

교민 헤어·디자이너 두각

배청자씨, 미스GHD경연대회서 입상

캐나다 헤어패션계에서 교민 헤어디자이너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레슬리와 핀치선상에 위치한 다리치(Da Ricci) 미용실의 지배인(Manager)으로 근무하는 배청자(Bonny Bae)씨가 16일밤 열린 제1회 미스·길드·오브·헤어·디자인(Miss Guild of Hair Design)경연대회에서 당당 2위(Runner up)로 입상했다.

온타리오미용사협회라고 할 수 있는 길드·오브·헤어·디자인(G.H.D)에서 회원간의 기술향상을 위해 금번에 최초로 제정한 미스G.H.D경연대회는 배씨를 포함, 16명의 헤어·디자이너가 참가한 가운데 이날 저녁8시부터 10시30분까지 영과 블루어 선상에 있는 호텔 플라자 II에서 열렸다.

제1부 운동복차림(Sports Event), 제2부 사무복차림(Business Look), 제3부 야회복차림(Evening Pcesentation)등 3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 심사는 헤어·스타일, 복장, 전체모양등 3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배씨의 헤어·스타일작품 모델로는 캐나다패션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교민 전인숙씨가 출연했다.

제1부 운동복차림에서는 전씨가 박종수도장의 사범인 장탁씨와 함께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으며, 제2부 사무복차림에서는 심홍·심소자부부의 차녀인 심현주(8세)양이 전씨의 보조역으로 출연했다.

금년 39세된 배씨는 전 신용조합장이였으며, 현재는 건물정비회사인 미라클·메인터넌스사(Miracle Maintenance Corp.)의 사장인 배형도씨의 부인으로 헤어·디자인에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헤어디자인 경연대회도 참가, 헤어스타일에 관해 연구 했다는 배씨는, "이번대회에 동양인으로 유일하게 참가 2위를 차지, 기쁘다"면서, "모델이 박종수태권도장에서 기증한 태권도복을 입고 나간것이 점수가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G.H.P.회장인 윌리엄·시브(William Saab)씨는 배씨의 헤어·스타일작품이 입상한 것은 헤어·스타일이 의상등 전체균형에 맞았기 때문이라면서 완벽한 수준(Everything is perfect)이라고 평했다.

온타리오내에 회원 300여명을 갖고 있는 G.H.D는 월1회 이상모여 헤어·디자인에 대한 연구발표, 강연, 정보및 기술교환을 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며, 매년 봄·가을에 최신 헤어·스타일쇼도 주최한다.

◆헤어·스타일 모델로 나온 전인숙씨.

가치관의 차이와 이민생활

이수민(철학박사·라발대학)

....

편집자주--이글은 지난 5월7일 몬트리얼 한인학자회에서 발표된 이수민박사의 「가치관의 차이와 이민생활」에 관한 논문개요이다.

이박사는 비엔나대학에서 유태인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획득했으며 현재 몬트리얼 라발대학에서 동양기독교문학및 유대주의(Rabbinic Judaism)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

여기에 이민온 우리가 처음당하는 어려움은 윤리관념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첫째, 유교적 가족제도를 상징하는 우리 동양 윤리관과 에토스, 즉 사회풍습, 관습을 중심으로한 서양윤리관과의 차이라 하겠고,

둘째, 지금 북미에서 복합사회내에서의 가치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Sperber는 "오늘 세계는 이민자나 원주민이나 모두가 이방인"임을 "영원하고 불가능한 귀향"에서 밝혔다.

여기서 간단히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사회윤리문제에 앞서 우리의 "사회"관념과 서구의 "사회"관념의 차이에 대해서이다. 한국의 사회관념이 전통적 유교사회관념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또 여기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중국자료이기에 여기에서 몇가지 중국에 관한 책을 바탕으로 삼았다.

C. K. Yang의 Religion in Chinese Society에 의하면,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 "자는 주나라(1027-256BC)시대부터 사용하는 토지·곡물신의 이름이고, 오늘까지도 토지·곡물신에게 드리는 지역(동리)제사를 사제라고 불러오고 있다.

일본인들이 19세기에 society를 "사회"라고 번역했고, 중국어도 이 어휘를 받아들였지만 이 단어가 society의 뜻을 주지도 못하며, 중국인에게는 엄연한 의미에서의 서구적 "사회관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도덕관이 가정과 국가만을 뚜렷한 사회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와 도교도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종교인데, 왜 유교적 사회관념만이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한다.

W. Eichhorn(Die Religionen Chinas)에서 춘추재전을 분석하면서, 시초에 Taoisme이 중국서쪽에서 성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혹시 Tibet지방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진술한다. 그리고 공맹자사상의 추거지는 중국동쪽이었으며, Taoisme과의 알력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관찰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한국이 중국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고 중국 동쪽지방전통을 소화하기 더 용이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역사적 진술인데, C. K. Yang에 의하면, 불교가 도교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한나라 시대 이후) 2세기말엽부터, Han백성이 아닌 이방인 세계에 많이 전파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유교가 다시 확립되면서 도교와 불교를 박해한 원인은 가정중심적 윤리체제를 파괴한다는 이유였으며, 드디어 도교와 불교도 유교와 절충해서 가정중심적 윤리사상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C. K. Yang은 중국의 전통적 사회에서 가문을 잃어버리면 국가등용의 길이 막혀버리고, 사회적 연관을 맺을 길이 없었으나 도교와 불교가 이러한 가정적 불우자들, 정치적 비국교도(dissidents)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씨조선 이후(1392) 유교사상이 중국에서보다 더 철저히 보급된 사실과, 한국이 중국보다 더 오래 쇄국정책을 쓴 사실을 보아, 중국인의 사회관념을 한국인의 사회관념에 적용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한국인의 사회관념을 간단히 진술하고,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할 서구의 사회관념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서구인의 전통적 사회관념은 그리스도교가 도입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스도교적 사회관념이라함은, 유대사상과, 할손례를 받은 희랍사상(특히 stoicisme)과 세례받은 로마제국사상을 통합한 사상(Syncretisme)을 의미한다. 즉 유태적 종교적 신적사회와 희랍적 이상적 철학적 사회와 로마적 국가적 법적 사회관념, 여기에 복음적 형제적 사회관념을 융합한 사상이라고 하겠다.

희랍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만 보아도 몫을 나눔, 공동체, 협동체, 자선사업단체, 영성체, 부부관계, 신과의 관계등의 뜻을 가지며, Latin어의 Societas는 국가적 동맹, 국가적 언어공동체, 결혼, 혈연관계등을 말하고 있다.

서구에는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허다한 종류의 사회관념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회이론들을 낳게 했다. 사회이론의 근본원리에 있어서도 신용을 근거로 하는 사회, 어떤 목적성에 매인 사회,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집단적 사회 등등 여러가지 형체의 사회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J. P. Sartre(1905-1980)은 "인간존재란 그자체가 고독을 의미하며, 자유에로 처단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없는 것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사회이론가들은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사회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라함은 인간의 충만된 인격(person), 문화적존재가 되려고 하는 본성을 의미하며, 이는 다만 상통(communication)과 협조(cooperatio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연법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궁극목적도 각자의 행복, 자기실현, 자기개화(Selbst-Entfaltung, Epanuissement de soi-meme)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자기실현, 자기개화는 "너와-나" 관계의 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한 Martin Buber의 사상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한국인과 서양인의 사회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은 상호의 보충의 필요성을 알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대화와 참여를 통해 서구사회를 체험한다면,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될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金聖鍾作

지성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35>

노파의 증언 ⑥

마형사 생각이있어 노파에 술권해

마인은 방안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무심코 그렇지만 그것은 몸에 익은 버릇이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버릇이 었다.

『자식은 품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에서 벗어나면 자식이아니야.』

노파가 웅얼거리듯 또 말했다.

마형사의 시선이 선반 위의 한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꿀단지였다.

『꿀을 좋아하시나 봐지요.』

『좋아하긴…』 아들이 나 먹으라고 사다줬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어느 아드님이 사다주셨나요?』

『큰 아들이 이번에 올 때 사다줬지. 그 애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얌전해. 이 에미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날 한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속으로는 날 원망하고있을거야.』

『큰 아드님 이름이 뭐죠?』

『큰 애는 왕일문이…작은 애는 조문이…。』

왕일문과 왕조문.

마형사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노파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 같았다.

『술이야 옛날에 많이 했지. 옛날에는 노상 술독에 빠져 살았으니까. 요새는 술 끊었어. 함께 마셔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술 마셔서 뭘 해.』

『저하고 한 잔 하십시다.』

『아, 사주면야 마시지.』

마형사는 권형사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일렀다. 권형사는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달려나갔다. 한참 걸릴줄 알았는데 그는 이내 술병과 안주를 들고 돌아왔다.

노파는 말대로 정말술을잘마셨다. 노파에게 술을 권한다는것이 미안했지만 마형사는 그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꾸만 술잔을 권했다.

취기가 돌자 노파는 옛날의 가락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유행가 가락을 흥얼대는 것이었는데 그 나이에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아주 썩 잘 불렀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지 두 시간쯤 되자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그제서야 그녀의 노래가락이 청승맞아지더니 끝내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illegible] 흐르듯 술술 흘러나왔다.

마형사는 두 아들에 대해 가끔씩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그녀는 서슴없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중국인 왕씨를 만나 자식들을 얻게되었으며, 그후 어떤 이유로 자식들과 헤어지게되었는가를 남의 이야기하듯 소상히 말해주었다.

『그럼 두 아드님은 아직 서로 만나보지도 못했나요?』

『못했어. 얄궂기도 하지.』

노파는 마침내 완전히 술에 갈더니 스르르 드러누워버렸다.

『큰 아드님은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고 떠나지않았나요?』

그러나 노파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취해 의식을 잃은듯했다.

마형사는 길게 한숨 지었다.

『그랬었구나…그랬었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중얼거렸다.

노파의 잠든 얼굴은 너무도 외로우면서도 평온해 보였다.

朴男 그림

구타여성 비상숙소 오픈

6주간자녀와 무료숙식가능

렉스데일지구 최초의 여성비상숙소인 어네스타인즈(Ernestine's)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남편에 구타당하는 여성과 그 자녀들에 임시숙소및 식사를 제공하는 이 호스텔은 3층 건물로 8명의 직원에 5개의 침실을 갖추고, 한꺼번에 2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위치는 키플링과 알비온 로드에 있으며, 전화는 247-4722이다.

동 호스텔직원인 수지·에드워드씨는 메트로·토론토의 여성 10명중 1명이 배우자로 부터 구타당하고 있으며, 통계결과 렉스데일지역에서 8주간 190명이 이같은 비상숙소를 필요로 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토비콕에는 미미크(Mimico)에 위먼즈·해비타(Womem's habitat)가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매년 3천명이 숙소제공을 거부당했었다.

구타남성으로 부터 위협을 받는 여성들은 주야불문 247-4722로 전화하면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최고 6주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다.

호스텔에서는 보통 상담및 직업알선등도 제공한다.

메트로·토론토에는 현재 10여개의 여성호스텔이 있다.

한국인 해외취업

63~82년, 100만명

(서울14일=연합)63년부터 82년까지 한국인 967,067이 해외에 취업, 미화8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해외취업 근로자 1인당 8,988달러씩 벌어들인 셈이다.

전문의, OHIP이탈 속출

의료복지업무에 큰 차질

최근 온타리오주정부의 발표에 나타난 온타리오건강보험계획(OHIP) 관계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내 전문의(Specialist MD.)들이 OHIP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의료복지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의회에서 발표한 래리·그로스만 보건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3월말 현재 1,975명의 의사들이 이탈했으며, 메트로·토론토내에도 전체의사의 3분의 1인 1,028이 빠져나갔다.

이탈의사들의 전문분야를 보면 마취과가 60.4%로 가장 많고, 안과가 42.5%, 방사선과 41.9%, 정형외과 37.7%, 정골외과 33.4%, 정신과 31.3%등이다.

한편 일반과(General Practice)의사들도 점차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현재는 이탈율이 6.3%밖에 되지 않는다.

그외 분야를 보면 신경과 6%, 수련의 5.7%, 소아과 4.5%등이다.

밥·웰치 동력장관 내정

『온』주 최초 여성문제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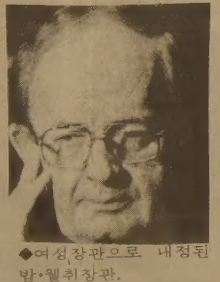
온타리오주 정부최초의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에 부수상겸 동력장관인 밥·웰취씨가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수상이 1개월전 여성문제장관에 중진을 기용할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웰취씨의 취임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

54세인 변호사출신의 웰취장관은 원만하고 의원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소문나 있다.

1963년에 의회에 진출, 3년뒤에는 시민권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1977년에는 부수상, 79년이후에는 동력부장관까지 겸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밥·웰치상무장관, 검찰장관 맥머트리검찰총창, 베티·스티븐슨 문교장관도 물망에 올랐다.



◆여성장관으로 내정된 밥·웰취장관.

암치료용으로 사용

금지되었던 헤로인

(오타와) 1955년이후 캐나다내에서 사용금지되었던 헤로인(Heroin)이 오는 가을부터 암치료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

15일 모니크·베긴 연방보건장관은 이 약품이 암환자의 통증에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연구할 것이며, 모르핀(Morphine)과도 효용성을 비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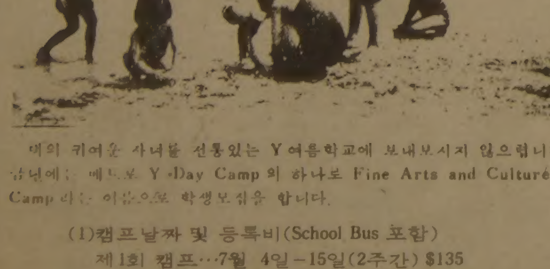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헤로인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을 포함한 약36개국에서 암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잊지못할 추억! Y 여름학교(Day Camp) 안내

토론토 한인YMCA TEL. 536-1166

931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A1



귀여운 자녀를 선통있는 Y여름학교에 보내보시지 않으렵니까? 금년에는 Y-Day Camp의 하나로 Fine Arts and Culture Camp라는 이름으로 학생모집을 합니다.

(1)캠프날짜 및 등록비(School Bus 포함)

제1회 캠프…7월 4일-15일(2주간) $135
제2회 캠프…7월18일-29일(2주간) $135
제3회 캠프…8월 1일-12일(2주간) $135
제4회 캠프…8월15일-26일(2주간) $135

(2) 캠프대상자 :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

(3) 프로그램(월-목요일·오전9시-오후3시반)

(가)한국노래및 세계민요
한국노래및 세계민요를 매일 30분씩 배우고 익힌다.

(나)한글(어학)공부
하루에 2시간씩 한글·불어·이태리어·포르투갈어중 한과목 선택.

(다)수영
매일 45분씩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을 한다.

(라)체육
에어콘이 되어있는 YMCA실내체육관에서 Floor Hockey, Murder-ball, Basket-ball, Valley-ball, Soccer 등을 한다.

(마)취미과목(선택)
피아노·미술·태권도·한국무용·과외공부(수학·영어)

금요일 프로그램(야외수업·소풍)
매주 금요일마다 즐거운 소풍을 가게 되는데 따라갈 수 있다. 가는곳은 Central Island, Sunnybrook Park, Ontario Place, Kew Beah, High Park, Wonderland, Clairmont Conservation Park등

(4) 캠프지도자
캠프 디렉터는 20년의 YMCA경력을 가진 김상열 총무가 직접 맡고 경험있는 젊은 대학생을 교사및 카운셀러로 기용, 어린이들의 안전과 흥미와 단체생활및 학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5) 데이케어
양부모가 직장에 나가는 어린이를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현대식 시설을 갖춘 Day Care Centre에서 맡아주며 그 비용은 2주간에 $25밖에 안받는다.

(6) TAX (세금공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는 이 Day Camp(여름학교)나 Day Care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7) 스쿨버스
안전한 스쿨버스에 훈련받은 교사나 성인이 동승함. 정확한 픽업시간은 개학 1주전에 캠프지도자가 통지할 것임.
미시사가, 스카보러, Yonge Steele, Markham등은 집앞 또는 인근 학교등에서 픽업할 것이며 신청수에 따라 스쿨버스 노선이 결정될 것이므로 먼저 신청하는 분이 유리함.

(8) 등록
참가할 캠프날자를 정한후 수표나 Chargex Visa로 신청할 수 있음. 수표를 보내는 경우 전액을 보내거나 $25예치금 수표와 잔액을 개학 14일전 날자의 Post Date 수표로 보내야 함.

(9) 할인
일시불로 하여야 할인의 혜택을 받으며 어린이가 2회부터는 $10씩 할인되며 한집서 두어린이 이상이면 첫회는 $10, 두번째회 부터는 $20씩 할인됨.

10. 반환
취소나 반환은 반드시 캠프시작 14일전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25 사무비는 공제된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축제풍성한 「온」주

캐나다·데이로 전후로 절정

5월과 함께 자연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볍다.

온타리오주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린다(Ontario Yours to Discover)」는 슬로건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벌릴 준비가 한창이다.

각 지역사회단체, 학교, 기관및 원주민 인디안그룹등이 총동원되어 캐나다탄생기념일(7월1일)을 크라이막스로 여름내내 잔치를 갖는다.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다.

▲5월21일-6월15일 : 센·캐트린(St.Catherine)민속예술축제

▲6월10일-12일 : 미시사가(Mississauga)가족축제

▲6월10일-19일 : 윈저(Windsor)카루셀(Carrousel)국제축제

▲6월16일-18일 : 캠브리지(Cambridge)인터내셔날축제

▲6월19일 : 노스욕(North York)딸기축제

▲6월17일-25일 : 토론토국제 카라반(Caravan)

▲6월27일 : 오크빌(Oakville)

창시자의 날(Founder's)축제

▲6월30일-7월3일 : 포트·프랑스해(Sun)의 축제

▲6월30일-7월3일 : 피터보로(Peterborough)여름축제

▲7월1일 : 스트라포드(Stratford)복합문화축제및 전시

▲7월1일-10일 : 포트이리(Fort Erie)캐나다·미국우정축제

▲7월20일 : 헌츠빌(Huntsville)개척자의 날 축제

▲7월22일-24일 : 런던(London)가옥축제(Home Festival)

▲7월26일-8월2일 : 토론토 카르바나축제

▲7월26일-8월1일 : 코발트(Cobalt)광부축제

▲7월28일-8월1일 : 심코(Simcoe)우정축제

▲8월4일-7일 : 토론토하버프론트 공예품전

▲8월6일-7일 : 수산마리(Sault Stemarie)국제에어쇼

▲8월17일-9월5일 : 토론토 캐나다전국박람회(CNE)

▲8월18일-28일 : 오타와 중부캐나다박람회

▲8월27일-28일 : 사우템톤(Southampton)인디안축제

▲8월30일-9월5일 : 키치너(Kitchner)중부온타리오박람회

지도를 비롯한 캠핑, 관광, 견학등의 정보가 담긴 여행안내서를 원하면 Ontario Taravel Queen's Park, Toronto, M7A 2E5로 연락하면 된다.

◆온타리오 각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마다 등장하는 인디안 민속과 의상이 호기심을 끈다.

〈연재소설〉

혼돈 ㉔

글·이태준 그림/최미전

제2편 착수

화장을 거의 끝낸 나는 유리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 핸드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다시한번 맵시를 둘러보고 있을때 아파트안의 초인종이 울렸다.

"언니, 택시가 왔나봐."

나는 흥분으로 얼굴이 빨갛게 붉어진 유리에게 씽긋 웃어 보이고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택시에 오르자 깜둥이 운전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방향을 물었다. 영어가 서투른 나는 조사장이 적어준 명함을 운전사에게 건네주었다.

"아주 좋은 호텔로 가시는구만요. 애인을 만나러 가세요?"

그는 괜히 혼자 좋아하며 능글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어가 서툰 탓도 있지만 시커먼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 놓고 웃는 그의 웃음이 빈정거리고 있는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아예 그로부터 얼굴을 외면해 버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노릿노릿 가로수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거리를 사람들은 바삐 오가고 있었다. 살기 위해 허덕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난한 한국이나 부유한 이나라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것 같았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무엇에 쫓기는것 마냥 허겁지겁 서둘러대고 있었고, 우뚝 솟아 괴물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빌딩의 숲속을 두려워하며 급히 빠져나가고 있은 것같이 보였다.

"여깁니다."

나는 운전사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메플리프 호텔, 택시요금을 치르고 밖으로 나온 나의 눈에 커다란 간판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나는 김사장이 나를 농락했던 나이아가라 호텔을 연상하며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하강표 화살에 불이 켜져있던 엘리베이터가 「땡」하고 종이 울리며 문이 열리고, 상승표 화살에 불이 켜졌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몇몇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9층의 레벨버튼을 눌렀다.

이윽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땡」하고 종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을 토해내고 삼키며 상승을 계속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다시 종이 울리고 멈추었을때,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의 문앞 맞은편에 901부터 910은 오른편으로 가라는 표시가 있었다. 나는 906호실이 나올때까지 문에 붙어있는 번호를 쳐다보며 오른편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중간쯤에서 906호실의 방을 찾아냈다. 핸드백을 열고 명함을 꺼내 방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른 것같이 화끈거렸다.

(조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나 방의 문이 열리면서 그 의문은 곧 풀렸다. 깔끔하게 차려입는 50대의 남성이 문앞에 서있었다.

"오셨군요. 나는 안오실 줄 알았는데, 와 주셨군요."

그는 감동어린 낯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그의 안내로 쇼파에 앉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음료수를 주문했다.

"애자양의 춤과 몸은 참으로 아름답더군요. 나는 애자양을 본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읍니다."

주문을 마친 그가 쇼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기름을 발라 곱게 빗은 그의 머리에는 눈에 띄게 흰 머리가 섞여 있었다.

"저는 바쁜 몸입니다. 용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뻔한 그의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능청을 떨었다.

웨이터가 문을 두드리고, 음료수와 술을 갖다 놓고 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음료수병을 따서 나의 컵에 따라주고, 자신의 컵에는 술을 따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애자양이 탐이 나서 부른 거요."

냉수 마시듯이 술잔을 비운 그는 생각보다는 조급하게 고백을 했다.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읍니다."

하는 소리가 목구멍을 넘어오고 있었지만 너무 대담하게 나오면 그의 탐욕이 시들어질 것같아서 꿀꺽 삼켜 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엉뚱하게도 속으로 숫자를 세어 나갔다. 얼마를 세었을때 그가 나를 공격하는가를 생각하며 숫자를 세었다. 나의 속셈이 50을 넘어섰을때, 그의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애자양, 내가 섭섭하게는 않을테니 우리 한번 즐겨 보자구.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어쩌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일까!)

그가 내몸을 더듬거리며 속삭일때 속에서는 거부반응이 솟구쳐 올라도 나는 눈을 감고 순순히 응해주고 있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흥분의 오르막길을 뛰어오르던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안아다 침대에 뉘이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아! 곱구나. 정말 곱구나!"

조사장은 내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낼 때마다 잠긴 목소리로 감탄을 했다. 〈계 속〉

살기위해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이나 이나라나 마찬가지 같았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三國志 647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8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GRAND OPENING 특별세일

1/2 OFF SPECIAL
특별세일기간 5월18일 ~6월4일

Para
LATEX
FLAT PAINT
4L
$6.95

HWY 401
McCowan
LAWRENCE

페인트롤러셀 $2.59
각종유명페인트 20% ~50% OFF
각종벽지 $2.49부터(REG. $9.49)
디자인책에 있는 다양한 벽지 30% OFF
50mm Bristle Brush 1/2 Price $1.49
FREE PAINT BUCKET(수량제한)

The Color Guard
Magic Film MOORGLO LATEX HOUSE & TRIM PAINT
Benjamin Moore & Co.
Benjamin Moore PAINTS

Sun Paint & Wallpaper 619 McCowan Rd. and Lawrence Ave. ☎438-6965

영업시간 : 오전8시~오후8시(월-목)
오전8시~오후9시(금)
오전8시~오후6시(토)

종교계소식

國歌 새로 "만들자" "안된다" 宗敎界 엇갈린 반응

佛敎 日帝때 愛國歌를 國歌사용엔 문제

基督敎 "우리의 얼을 지켜왔다" 적극반대

(서울)최근 애국가대신 국가를 새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을 놓고 불교계는 이를 적극 동조하고 있는데 비해, 기독교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국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가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애국가는 지난날 일제의 거센탄압과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도 애국애족을 위한 우리의 얼을 지키려 불려왔고, 우리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족의 국가이다. 그러기에 누구도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으며, 우리의 애국가 이외에 또다른 국가가 필요하다고 여길사람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층에서 새삼스럽게 애국가는 국가일 수 없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불교대학생연합회 지도법사단 간사장인 석도수스님은 국가제정의 움직임이야말로 국민적 차원에서나 불교인의 입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애국가는 결코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도수스님은 그 이유로서 애국가는 글자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일 뿐으로 일제강점시기에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노래한 애국가가 수없이 많았었는데 하필 지금의 것을 국가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필균, 한명원, 이용우, 유태성, 문경호등 애국가를 작사한 애국지사들이 많았으며, 현재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안창호에 의해 다소 개작되었다고는 하나 원작이 윤치호로 알려져 있는데, 광복직후 친일파로 지탄받았던 그의 애국가작사를 국가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기독계의 성명서는 "외적의 침입을 우려하며 내적인 사회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요망되는 때에 국가제정이란 불필요한 문제로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은 반국가적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이에대해 대학생지도법사단측은 '윤치호의 애국가속에 하느님이란 구절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민족 고유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특정종교의 색채를 띤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불교신자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라도 마땅이 현재의 애국가가아닌 다른 국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독청년수양회

파일·오챠드 캠프장

한인기독대학생회(KICVF, 회장 김인기)가 주최하는「발견 '83(Discover '83)」주제의 청년수양회가 오는20일(금) 부터 23일(월)까지 파인·오챠드(Pine Orchaed)캠프장에서 열린다.

이번 수양회의 강사는 현재 뉴욕연합청년회 담당자인 고석희목사이다.

참가비는 1인당 $40.

수양회 문의는 전화 536-8018 송병현씨.

교황청태도 완화

350년전 갈릴레이 종교재판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지난9일 바티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오늘의 갈릴레이과학」에서 연설, "일찌기 갈릴레이가 교회측에 의해 고통받은 것을 인정한다. 이 경험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을 지지한 갈릴레오·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난사건으로 부터 350년만에 바티칸은 분명히 교회측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로마교황은 지난 79년, 갈릴레이사건을 재평가하기 위해 교황청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당시의 과학지식과 종교의 관계를 조사시키는 한편, 갈릴레이 종교재판 기록의 출판준비도 진행시키고 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과학과 종교간의 건전한 대화를 촉구하는 의도로 추측되고 있다.

교인신앙강좌

21일 미시사가연합교회

미시사가연합교회(담임 유환진준목)는 오는21일(토) 라마다·인호텔(401 West와 Dixie South교차지점)에서 교인신앙강좌를 갖는다.

동 교회는 연2회 신앙강좌를 열어 신앙의 무장과 교인의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강사는 반병섭목사(한인교회)이며, 주제는 "선한청지기의 직분"이다.

또한 동교회는 오랫동안 물색해 오던 교육담당교역자에 서동천전도사를 최근 초빙, 5월2째 주일 부임했다.

교회내 친선골프대회

23일 한인교회

한인교회(담임목사 반병섭)친교위원회와 부부회 주관의 교회내 친선골프대회가 오는23일(월) 오전7시15분 부터 리치몬드·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대회가 끝난 오후1시 부터는 청장년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동교회 여선교회는 선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새빛교회(맹인교회)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새빛교회 담임인 안요한목사는 성인이된 후 실명하여 목회자가 되어 현재 맹인을 위해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낮은데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는 여러곳에서 순회상영되고 있다.

목사안수 축하예배

새예루살렘교회

새예루살렘교회는 오는 20일(일) 예배시 본교회 김승환목사의 목사안수를 축하하는 기념예배를 갖는다.

김목사는 5월11일 피터보로의 노스뷰교회에서 열린 캐나다 펜타코스탈연례노회에서 노회장 맥나이트목사로 부터 동교단내 한인최초의 목사안수를 받았다.

서울문리대를 졸업하고 토론토대 임마누엘신학교 2년 수료와 위클리프신학교를 졸업한 김목사는 동교회를 창립 약2년간 목회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 3녀. 이날 예배후 축하연이 있을 예정이다.

◆김승환목사

또한 동교회 남전도회는 5월23일(월) 공휴일을 맞아 나이아가라관광회를 갖는다.

출발시간은 오전9시로 교회에서 출발한다.

또한 6월4일(토)에는 성서에서 가르키는 환란에 대한 영화 "Years of the Beast"를 상영한다.

제1회 부흥성회

키치너·워터루한인장로교회

키치너·워터루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정동석)는 오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간 제1회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뉴욕휘레스트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는 양회철목사이다.

부흥회의 주제는「교회와 신앙생활」이며, 집회시간은 20일·21일 양일은 오후7시30분, 22일은 오후1시30분이다.

또한 21일 새벽에는 조찬기도회를 가지며, 22일 저녁에는 제직을 위한 특별모임을 갖는다.

현재 키치너·워터루지역에는약80가구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동교회의 주소는 388 Ottawa St, S, Kitchner, Ontario, 연락전화는 519-579-0954.

가죽장수

김요환목사(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목사.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욥기 2:4)

경제유통의 수단으로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의 아주 오랜 옛날에는 물물교환이라는 방법이 성행했다고 한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교환했는지는 모르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는 더좋은 물건으로 바꾸기를 원했을 것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사탄」이 한 말로서,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이란 소유물과 생명사이에서 장사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즉 사람이란 별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 가죽장수에 불과하다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삶을 장사하는 장수에 비유해 놓은 것을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마태25 : 14-30).

과연 인생은 길든 짧든 정해진 시간과 공간안에서 주어진 자본을 이용하여 장사하다가 자본주가 돌아올 때 결산을 해야만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생사화복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다.

××××

장사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다. "밑지면서 판다"거나, "본전에 판다"는 말은 삼대 거짓말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 누구도 먹지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자선사업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실제로 두종류의 장수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손해보며 장사하는 어리석은 장수이다.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소유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는다. 그래서 돈 몇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위험한 짓도 사양치 않으며, 죽어도 좋으니 권력의 자리는 내놓을 수 없다고 버리는 자들이다.

이들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만「롯의 처」나, 자기 배만을 불리기위해 더 큰 창고를 짓고자 계획했다가 그날로 죽은 미련한 부자의 후예들이다.

어리석은자들이여!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태 16 : 26).

둘째는 이익을 남기며 장사하는 지혜로운 장수이다.

이 부류에 속한자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간적인 쾌락과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안할뿐더러,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 위인들, 특히「바울」같은 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한분만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소유물을 해롭게 여길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였다.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자마다 여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 19 : 29)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혜로운 장수가 되는 비결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

정든 고국산천과 그리운 혈육을 떠나 이역만리 낯선땅에 와사는 우리 교민들은 좀 더 잘살고 보람있는 일도 하며, 자녀들도 훌륭히 교육시켜 보겠다는 목적과 집념아래 피눈물나는 고생도 불사하고 있다. 고생하고 수고한 보람이 있어 많은 교민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곳 정치에도 발을 들여 놓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2세들의 성공적인 교육소식도 들려온다.

참으로 흐뭇한 소식이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전에 잠시 심사숙고해보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위해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가? 지금 나는 어떤 부류의 장수인가. 귀한 생명을 하찮은 소유물과 바꾸고 영원한 저 세상을 잠시잠깐 동안의 이 세상과 바꾸는 어리석은 장수인가? 아니면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는 슬기로운 장수인가?

사람은 가죽을 가죽과 바꾸는 가죽장수이다. 과연 나는 어느쪽에 속한 가죽장수인가!

부처님 오신날

석광옥(불광사 주지)

사월초파일(5월20일), 해마다 이날이 오면 불자들은 정성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각종행사를 마련하고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연꽃등으로 불을 밝혀 축하한다.

부처님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이땅에 무엇때문에 왔는가? 부처님은 대해탈인(大解脫人)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온 곳이 없고, 오는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이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육신으로 이땅에 시현했다. 부처님은 우리 미혹한 중생처럼 업보(業報)에 의해서 육도(六道)에 윤회(輪廻)하는 몸이 아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자유의지가 아니요 부처님의 출현은 온전한 자유의지이므로 시현이라 한다. 부처님은 나고 죽는 분이 아니지만, 나고 죽음을 보였다. 생사를 실다운 것이라고 믿는 중생에게는 방편으로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어야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명 여래(如来)라고도 부르는 바 진여(真如)의 세계에서 왔다는 뜻이다. 진여의 세계는 사바세계처럼 생, 노, 병, 사등 번뇌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득한 옛날 카비라국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을까? 그것은 인간생명의 참된 가치, 즉 인간의 본래적 모습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찌기 수많은 철인과 종교인이 참다운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고, 또 바람직한 완인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찾아낸 인간상이란 그 어느것도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절대라든가,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라고 자신있게 선언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전제가 따라다녔다. 신이라든가 하늘등의 전제속에 인간의 의미를 구현하려 들었다. 즉 부처님 이전의 숱한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온전한 절대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엄청나게도 6년고행끝에 도를 깨달은 뒤, 자기자신이 곧 우주의 주인이며 실상이란 것을 확실하게 사자후로 선언하였다. 부처님에게는 아무런 관념도 소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의 주체인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관념까지도 버렸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관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얽매어 있는한 대립과 모순, 갈등은 면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말이나 중국 육조 혜능선사의「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不思善 不思悪)는 가르침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미 넘어설 것은 다 넘어섰고, 가야할 곳까지 다 갔으며, 이길것을 다 이겼다. 그래서 일체승자, 일체지자라고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중에서 가장 어려운자입과 동시에 가장 절대 불가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친숙하고 쉽게 느껴지는건 신이 아닌 본래적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어렵고 쉽게 느껴지는 것 또한 모두가 우리 자신에 달렸다고 본다.

252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온 국토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부처님 오신날」행사

21·22일, 선련사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는 오는 21일(토)과 22일(일) 양일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행사를 갖는다.

행사내용을 보면,

▲21일(토)

오전11시 : 헌공예식, 어린이 연날리기 대회

12시 : 기념법문(삼우스님)

오후 1시 : 대중공양

4시30분 : 강연 "북미인을 위한 불교" : 린다·업트그로브씨. 영화상영 "불교진리와 불교, 인간과 자연"

오후7시 : 연등행사

▲22일(일

오전9시-11시 : 참선정진

11시 : 법요식(염문)

오후3시 : 좌선교실

7시 : 문화의 밤

한편 양일간 12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불교서적, 불교음악카셋, 일반교양서적, 고전민예품등의 기념바자회도 열린다.

선련사의 주소는 46 Gwynne Ave(King×Dufferin), 전화 : 533-6911, 532-3491.

어린이축구팀 조직

벧엘교회

벧엘교회(담임목사 최상봉)는 교내 어린이 축구팀을 조직하고 15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매주일마다 연습할 축구팀은 A팀 11명, B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는 송충강집사가 담당한다.

동교회 청년회도 14명으로 구성된 밀알축구팀을 편성하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5월29일에는 청년헌신예배와 여전도회주최 교내친선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신상부흥 사경회

26~29일

토론토중앙교회(담임목사 정관일) 남전도회는 오는 5월26일(목)부터 29일(일) 새벽까지 뉴·마켓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파인·오챠드(Pine Orchard)캠프장에서「산상부흥 사경회」를 개최한다.

서울영동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전동운목사이다.

집회문의는 전화 : 826-8986, 961-3189, 444-9168.

교회단신

▲메시아교회(담임목사 조창환) : 15일 창립1주년기념예배를 가졌다.

▲충현교회(담임목사 박경남) : 15일 창립2주년기념예배를 가졌다. 예배후 전 교우기념촬영이 있었다. 월간 충현4회 발간.

▲웨슬레감리교회(담임목사 여응순) : 최근 캐나다, 한국, 일본 3개 교회의 합동표시간판을 제작하고 있다.

▲한인감리교회(담임목사 박춘하) : 오는 6월12일 센·죠지 캐나다교회와 합동예배를 갖는다.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최규식) : 어린이 첫 영성체가 22일 오후1시에 열린다.

▲영락교회(담임목사 김재광) : 17일부터 20일까지 본 교회에서 미주한인장로교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바자회 (선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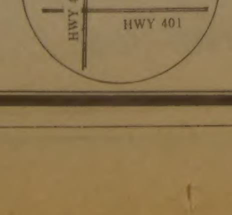
卍 품 목
● 불교서적과 잡지
● 불교음악(찬불가)및 범패녹음테이프
● 불상과 염주
● 선서화, 목판화(십우도), 불교그림엽서
● 먹, 붓, 벼루
● 한국가면(탈), 바가지예술, 비천상및 백제여인의 미소
● 탁본및 초의선사 사명대사 프린트
● 된장이외 식료품등 다수

卍 때 : 5월21일(토), 22일(일) 12시~6시

卍 장소 : 한국불교회 선련사
46 GWYNNE AVE.
(King & Dufferin)
TEL: 532-3491 533-6911

산상부흥사경회

일 시 : 1983년 5월26일(목) 밤7시30분~5월29일(주일) 아침7시
주일 낮·저녁집회는 본교회당에서.
장 소 : PINE ORCHARD CAMP 장
강 사 : 전 동 운 목 사
(서울 영동제일교회 시무·현재 1년 예정으로 시카고 무디신학교에서 성경연구중)
교통편 : 1) 직접 오실수 있음(토론토에서 50분거리)
2) 교회버스를 이용하실분 : 목·금/ 두번 운행. 오후6시까지 중앙교회(Bathurst + College)로 오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 : 826-8986, 961-3189, 444-9168)
참가비 : 개인당 15불(침구및 세면도구·휴대용 전기난로 각자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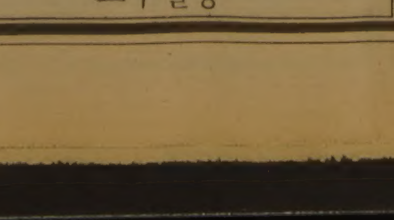


토론토 중앙교회 남전도회

목사 안수 축하예배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환목사님께서 지난5월11일 카나다 펜티코스탈노회로 부터 정식안수(ORDINATION)을 받으셨으므로 아래와 같이 축하예배를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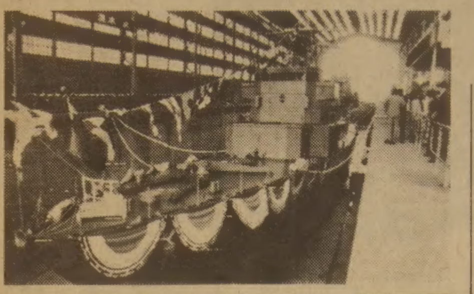
□일시 • 1983년 5월22일(주일) 오후2시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



* 예배후 축하연이 있읍니다.
새 예루살렘교회
교우일동

이-시리아 戰雲

시리아 蘇군사활동 增加
아사드、撤軍案 전면拒否


◇蔚山현대조선소에서 진수된 한국형최신예경비함。대함,대공,대잠함등에 대한 동시공격능력을 갖추고있다。【蔚山=電送聯合】

【예루살렘外=聯合】모세·아렌스 이스라엘 국방상은 13일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전쟁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렌스국방상은 친정부 일간 마리브지 13일자에 실린 인터뷰기사에서 베이루트주재 소련외교관가족들을 본국으로 소개한것은 지난 몇주동안 발생한 전쟁가능성의 여러가지 징후중의 하나라면서 그같이 밝혔다.

또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도 13일 시리아에서의 소련군사활동의 증가로 시리아·이스라엘간의전쟁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와인버거 장관은 이날유태위원회 연례총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소련의 시리아에 군사력증강이 레바논주둔 외국軍철수 실현노력을 더욱 어렵게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마스커스=聯合】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를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간의 협정조인이 임박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13일이 협정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압델·할림·하담 시리아 외상은 성명을통해 미·이스라엘·레바논간에 곧 조인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안은 시리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리아는『이 협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담외상은 이날 시리아측의 거부 입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다마스커스를긴급 방문한 엘리에·살렘 레바논외상과 회담을 가진후 이같이 선언했다.

또한 하페즈·알·아사드 시리아대통령도 살렘외상과 만난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를 위한 미국의 안이 레바논을 이스라엘의 보호령』이 되게 할수도있다고 지적하고 시리아는이 철군안에 동의할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드대통령은 대통령관저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철군안은 아랍연맹헌장과 아랍정상회의결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레바논을 아랍의 입장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美·이스라엘·레바논의 철군협정에 조인하더라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레바논주둔 병력을 철수시키지않는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때문에 시리아의거부입장이 이 협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敎皇 "내년10월 訪韓"
全대통령 親書받고 밝혀

【로마=聯合】로마교황요한·바오로 2세는 13일 李振羲문공부장관으로부터韓國가톨릭선교 2백주년을 맞아 교황의 84년 한국방문을 환영한다는 全斗煥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꼭 한국에가겠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낮12시10분부터30분동안 李振羲문공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자신은 한반도의남북분단상황을잘알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반면 북한에는 신앙위 자유가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교황청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한국정부로부터 오는 84년 10월 한국을 공식방문해 주도록 초청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가톨릭주교단은 이미 작년에 교황의 한국방문 초청을 바티칸당국에 접수시켰던것으로 전해졌다.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3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李振羲문화공보부장관에게 바티칸박물관 소개책자 1권을 선물로주고있다。【바티칸시티13日AP電送=聯合】

大企業「해외金融」규제
與信한도에 포함
20개業體서 60億弗 넘어

한국은행은 국내대기업이 해외금융시장에서 직접빌어쓰는 현지금융이 늘어남에따라 기업의 여신규제한도를 해외현지금융까지 포함키로했다.

14일 韓銀에의하면 지금까지 국제수지방어와 부족한 국내자금조달을위해 재벌기업들이 자기신용으로 해외금융시장에서 차입해쓰는 현지금융을 사실상권장해왔으나 최근들어 그규모가 60억달러를 넘어서는등 지나치게 방대해짐에따라 지난4월15일부터 전체여신한도에 포함시켜 규제키로했다.

은행법에따른동일인여신한도는▲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25%▲지급보증은50로 되어있는데 이조치에따라 기업은 해외차입자금까지 한도에 묶이게되어 자금조달에 큰제약을받게되었다. 4월말현재 국내기업이 해외금융기관에서 빌어쓴 외채는 20여개업체가 60억달러를 차입한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차입의 규제와함께 당국은 CP(시종기업어음)발행및 회사채발행제한과 당좌대월한도축소등 긴축을 강화하고있어 기업은 앞으로 크게 자금압박을받을것이 예상되고있다.

李外務-워커 要談
피납中共機등 논의

李範錫외무장관은 14일상오 외무부를방문한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와 30여분간 요담했다. 이자리에서는 李장관의 訪美결과와 中共여객기 납치사건에 관한 한국측대처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M X개발비 承認

【워싱턴AP=聯合】미상원세출委는 12일 레이건대통령이 제출한 MX미사일개발비지출안을 찬성17、반대11로 승인했다.

이지출안은 전날 하원국방세출소위에서 찬성9、반대3의 표차로 역시 채택된 바있다.

내일 外務委
中共機사건 報告 청취

국회는 16일하오 外務委를열고 中共여객기 被拉사건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뒤 정책질의를벌인다。

外務委는 이와함께 李範錫외무장관으로부터 美國의 對韓방위공약과 지원체제에대한 訪美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한국型 新銳경비함 進水
高性能 레이다장비… 敵艦 早期포착 가능

【蔚山=申鉉鈺기자】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신형경비함이 진수됐다.

해군은 14일상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吳慶煥해군참모총장과 鄭周永 현대그룹회장、군고위장성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경비함의진수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진수된 경비함은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축적된 방위산업 기술로 기존 한국형 경비함의 성능을 크게 보완、한국해역의 특성에 맞는 설형을 설계 건조한것으로 추진 계통이최신 기관으로 설계돼있다.

이경비함은 또 중앙통제식 자동화변장치를 갖추고 있어 기동력이 뛰어날뿐아니라 기존 함정보다 레이다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적함의 조기발견이용이하도록 돼있다.

특히 이 경비함은 그능력에 있어 사격통제장치시스팀을 채택함으로써 고도의 사격능력과 대함·대공·대잠함등 다중 위협에 대비한동시 공격능력을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전투상황발생시 신속한 응전이가능하고 수개월간 원거리작전을 수행할수 있다.

도미니카首相 어제來韓

메어리·유제니아·찰스 도미니카首相이 金相浹국무총리 초청으로 4일동안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14일 하오 來韓했다.

찰스수상은 訪韓중 16일 金총리와 수상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며 이 청와대를 예방한다.

한국基督敎 급속히伸長
美紙 보도

【뉴욕=聯合】한국의 기독교는 그동안 급속히 신장 25년전만해도 인구의 5% 미만이던 신자수가 이제는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면에 두번째 머리기사로 한국의 기독교실태를 상세히 보도하고 얼마전까지만해도 외교인선교사를 받아들이던 한국이 이제는 인도、방글라데시、아프리카등 세계여러곳에 선교사를 파견할만큼 기독교가 신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질러온 여름… 더위 씻는 불곰
물속에 첨벙뛰어든 昌慶苑의 불곰。14일 서울지방의 낮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자 유럽産불곰도 더위를 못참겠다는듯 물속에 뛰어들어 시원한 표정을 짓고있다。【李基龍기자찍음】

社會漫評

세금기준은 배둘레로 합시다…

납치범亡命 촉구
自由中國 외교부

【臺北14日=聯合】朱撫松자유중국외교부장은 6명의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고있는 臺灣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13일 한국에 촉구했다.

朱외교부장은『우리는 한국정부가 한국과 자유중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와 영웅들이 밝힌 뜻에 따라 그들을 자유중국으로 보낼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성명은 朱부장이 이날 金鍾坤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납치범들의 장래문제를 논의한 뒤 金대사에게 그와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週刊한국

홍콩 流浪者협회
拉致犯석방 탄원

홍콩流浪者협회 대표 周慶鐵씨는 14일 상오 문공부로 愼伯寧공보국장을 방문、中共여객기 拉致犯들을 조속히 석방해줄것을요구하는 탄원서를전달했다.

이날문공부방문에는 韓·中反共同志會 韓鍛松회장、譚泳發부회장도 同行했다.

地平線

유리·안드로포프는 집권 6개월을넘기고있다. 작년 11월 12일 브레즈네프사후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소련공산당서기장에 올라선 안드로포프는 지난 9일 소련군사평의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군사평의회 위원장은 소련군최고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故브레즈네프는 당서기장、최고회의간부회의장、군사평의회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었다. ▼이 3가지 권세를 한손에 잡을때 명실공히 소련을 강력하게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드로포프는 이제 이 크렘린의 3大직위중 2가지를 손아귀에 넣은셈이다. 그가 아직 손에 잡지못한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은 국가원수의 자리다. 간부회의장은 상징적 존재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크렘린의 현실정치에서는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닌것 같다. ▼64년10월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遠因은 그 4년전 브레즈네프가 53세로 간부회의장에 취임한데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브레즈네프를 실권없는 명예직에 떠올려놓고 심복 코즐로프를 후계자로 지목해 두었다. 하나 이책략은 오산이었다. 브레즈네프는 드니에풀派및 모르다비아派등 당내 넓은 인맥을 활용、기반을 굳히면서 흐루시초프에 도전해갔던 것이다.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세력팽창행의 전개였다.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을 겸임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이나 협정에 조인할수 없다. 외국을 방문할때도 원수로서 영접되지 않는다. 안드로포프가 이런 국가원수자리를 固辭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공석상태는 그가 아직도 권력기반을 충분히 굳히지 못한 증거라고 보는 풀이를 설득력있게 뒷받침한는것이다. ▼또 설사 언젠가는 안드로포프가 국가원수직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故 브레즈네프서기장이 후계자에게 넘긴「숙제」를 해결할수는 없을것 같다. 그 숙제중 가장 큰것은 老齡支配체제의 청산이다. 68세의 고령으로 당뇨병과 만성신장염까지 앓고 있다는 안드로포프의내일은 과연 어떠할지、집권반년을 맞은 오늘의 관심거리일성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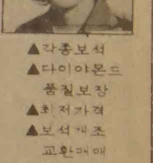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모든 생활活動의 自由는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독자제위들을 爲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신간서적
좀더 알고 믿게하는
「길벗들의 대화」
―오강남 저―
(종교철학박사 사스카치완주 르자이너대학)
*우리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종교의 실체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오교수의 예리한 분석을 들어보자.
※필자는 최근 토론토한국일보에 약20여회에 걸쳐「현대적인 속담풀이」를 연재, 큰 호평을 받았다.
가격 : 10달러
판매처 : 토론토한국일보 총무국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533-2361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Springwood Homes inc.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렛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별장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철, 안영운
TEL : 661-3124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공고
제7차 토론토한인신용조합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의 개선이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이사회 한상훈(유임)
김학량
윤호영(유임)
이홍렬, 김병권
김상룡(신임)
대출위원회 김창범(유임)
최태권, 김종조
감사위원회 이영철(신임)
김인규(신임)
정필주
토론토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상훈

東西무역마찰 和解

西方선진7개국회담 앞두고 추진 움직임

OECD 意見差 없어

【워싱턴UPI=聯合】서방선진 7개국은 동·서무역문제에서 기본적인 견해차를 보여왔으나 오는28일~30일 美버지니아州의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리는 경제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문제를둘러싼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파리에서열린 24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회의에서 동·서무역문제에 대한 의견충돌은 제기되지 않았다.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현싯점에서 논란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영·서독·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등 7개국경제정상회담에서도 동·서무역문제가 부드럽게 다루어지리라는 추측을 일으키고있다.

미국은 총수출의 약2%를 소련및 東歐에 수출하고 있으나 이를 대부분이 對蘇곡물수출이며 蘇聯圈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수입량의 1%에도 못미친다.

OECD전체로 보아서는 총수출량의 약 3%가 蘇聯圈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蘇聯圈과의 무역이 제한된 규모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기본적인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은 모두가 동의하는 對蘇禁輸전략기술품목을작성하자고 유럽동맹국들을 설득하려 시도해왔다.

미국은 또 무역을외교정책의 무기로 사용하는데도 유럽동맹국보다는 더욱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었다.

레이건 美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들이 시베리아·西歐가스관부설공사에 장비를 제공하지못하도록 禁輸조치를 내린바있으나 프랑스·영국·서독·이탈리아등 西歐국가들은 自國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조치를 무시했다.

◇세계「勞組」소리를 듣는 레이건　레이건 美大統領은13일 白堊館閣議室에서 슐츠國務장관및 커클랜드 美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의장(레이건 오른쪽)을 배석시킨가운데 西方先進國 勞組지도자들로부터 7개先進國頂上회담에앞선 建議사항을 청취하고있다. 【워싱턴13日 AP電送=聯合】

사할린 韓人실태 蘇에 조사申請

日閣議서 議決

【東京=聯合】일본정부는13일 閣議에서 사할린잔류한국인문제와 관련, 『소련에 실태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對의회답변서를 의결했다.

野黨의원질문에 대한이 답변서에서 일본정부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나 사할린에 억류된 한국인들의귀국실현을 위해 우선 소련에 실태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또 지금까지의 같은 일본의 문제제기에대해 소련은 일본과 협의할 성질의 것이아니라면서 이 제의를 언제나 일축해왔다고 지적했다.

키프로스 占領軍 철수案 유엔서 압도적 通過

【유엔본부AP=聯合】유엔총회는 13일 키프로스내의모든 점령군 즉각철수에관한 결의안을 찬성 1백3·반대5·기권20의 압도적 다수표로 통과시키고 『점령군 철수는 키프로스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한 필수적기반』이라고 선언했다.

알제리등 비동맹 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의 주선으로 키프로스양대세력간에 열릴 협상과관련, 이들 세력에대해 『결실을 목표로 한 건설적 협상』을 벌이라고 호소했다.

政局往來

昇進·原隊복귀에 만족

民正黨은 정책조정실의 韓元道전문위원을 黨에 영입한지 1년반만에 職級을올려 親廷인 法制處법제조정실장(1級)으로 錦衣還鄕시켜 만족해하는 표정.

民正黨의 이같은 「喜色」은 지난81년말과 82년초 黨政交流방침에따라 행정부의 국장급(2급)들을 대거 黨전문위원으로 迎入하고앞으로 2년후 한계급씩올려 原隊復歸시켜주겠다고 약속 했었는데 半强制(?)로 黨에몸담게된 행정관료출신 전문위원들이 이약속이행여부문제로 神經을써왔기 때문.

이런영향때문인지 이번에 3명의 행정관료를 전문위원과 道지부사무국장으로 맞아들였는데 民正黨은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黨의 한관계자는 『행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것과 정치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眼目이 다른만큼 黨에서 일정기간 일하는것은 매우 도움이될것』이라고 분석.

崔相泰기자 出國 中東건설 취재차

本社 崔相泰경제부차장은 약2주일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각국의 해외건설현황을 취재하기위해 14일하오 1시 KAL편으로떠났다.

臺灣선 납치범을 「義士」라며 보내줄것을 요청

臺灣과 기본관계不變

구독신청 배달사고 593·2061

16일 자유중국등 東南亞를 방문할 民韓黨소속 5명의의원들은과 林鍾基총무는 14일상오 국회총무실에서 李範錫외무장관과 孔魯明차관보의 내방을 받고 中共被拉機사건과 자유중국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약30분간 브리핑을 청취.

이 자리에서 李장관은 『자유중국과 우리의 기본관계는 변함없다』면서 『자유중국정부는 외교부장 명의로 한국주재大使를 통해 그들이 「義士」라고 부르는 中共여객기 납치범들을 조속히 臺灣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측은 국내법에 따라 우선 재판을 받게될것임을 통보했다』고 설명.

이날 외무부측의 자진보고는 民韓黨의 申在休 柳在熙 趙鍾益 徐鍾烈 鄭貞薰의원이 피납기사건후 입법부로서 처음으로 자유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出國에 앞서 한국정부의 對자유중국 입장을 미리 설명해주기 위한것이라고.

記者의 눈

숨가쁜 서울

「만원서울」이란말이 이제는 「초만원」으로바뀌어야한다. 면적으로는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22.64%가 밀집해있으니 말이다. 사람뿐만 아니다. 대출 62.04%, 도·소매업판매금액 36.54%, 모든財貨의 50%안팎이 서울에 몰려있다는 통계다. 또 있다.

관광호텔객실수는 56.83%, 자동차수 41.05%, 전화가입자수 35.73%, 종합병원수 39.02%, 대학교수 43.53%…모든것이 서울로 서울로만 모여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휴전선을 지척에둔 안보 이유가 아니라도 서울이 좀 숨통을 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13일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은이같은 서울의 이상비대증을 치유하기위한 것이란 점에서 우선 관심을 가질만하다.

지난해 제정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우리정부가 지향할 청사진인 기본계획은 91년 서울인구를 9백60만명선에서 묶는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뉴스를 접한 독자들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많이 발표되었던 점을 기억하고있다. 얼핏 생각나는 것만해도 지난 70년「수도권 인구집중예방에 관한 기본지침」을 필두로 건설부·경제기획원·서울시·제1무임소장관실 등 관련기관에서 유사한 계획과 정책과 법령들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서울의 인구는 70년의 5백52만여명에서 3백여만명이나 더 늘어나 있다.

계획의 잘잘못을 말하려함이 아니라 이같은사실은 얼마나 중지를모아 이미 수립한 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관계부처간에 서로 엇갈리는 이해관계는 없는지, 관계법령끼리 상충되는 저해요소는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면밀히살피고 조정한다음 계획에 정당성이 입증되면 정부와 국민이 정말 온갖정열을 쏟아 부어야한다. 서울의 이상비대증은 이미 치유의 시기를 놓쳐 위험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발표를 또한번 믿어본다. 【文昌宰사회부기자】

事件해결 外務部구상대로

한국·中共 被拉機 外交교섭 뒷이야기

◇10일 新羅호텔에서열린 中共여객기 피납사건의 양측 합의각서 서명식. 中共 정부 수립후 최초의 韓·中직접회담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건으로 이뤄졌지만 이사건은 양국의 관계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中共여객기被拉불시착사건으로 빚어진 「中共人熱風」,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만3일간의 「外交드라마」는 被拉승객들과 中共대표단이 돌아간뒤에도 계속 숱한 화제가 꼬리를물고있다. 정부수립후 35년간 계속돼온 韓·中共관계의 「斷絶」에서 볼때 이번 사건은 그만큼 큰사건이었고 돌발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승객들과 中共대표단이 돌아간뒤에도 앞으로 韓·中共관계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과함께 그들이 남기고간 言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비록 한때는 우리의 敵國이었지만 中共이 東北亞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같은 文化圈의 나라라는점등 때문일지도 모른다.

○…中共여객기가 불시착한것은 5일 하오2시10분이었으나 이번사건이 당초 외무부에 통보된것은 이날 하오3시께. 당시 李範錫장관은 訪美중이었고 盧載源차관은 서울모처에, 孔魯明차관보와 金炳連亞洲국장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을 이용했지만 간부들의 즉각 소집이 어려웠다.

다행히 拉致사건의 소관부서가 조약과인데다 洪正杓조약과장이 當直이어서 洪과장이 관련국제협약을 찾아 관계조항까지 정리해 두었고 4시께 황급히 달려온 孔차관보등이 대책회의에 참석, 국제법관계와 처리방안등을 협의했다.

이 사건이 완전 매듭된 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사건은 당초 외무부의 구상에 따라 해결됐다』고 自評할 정도였다.

외무부가 그런대로 처음부터 「국제협약원칙」이라는 방향을잡고 대처할수있었던것은 지난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亞太지역회의에서 東京과 北京을운항하는 일본및 中共여객기의 우리 비행정보구역(FIR)통과문제를 韓·日·中共3국이 합의할때 洪과장이 참석한데다 최근 조약과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새로 정리, 관련협약과 조문들이 洪과장의 머리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는 後聞이다.

○…中共측이 被拉여객기 처리문제를 협의하기위한 교섭단을 우리나라에파견할뜻을 비치자 정부는 센루(沈圖)단장의 신원파악을위해 제3國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우리측의협조요청을 받은 제3국에서는 그의 身上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함께 그를 「宮廷紳士」로 평가해왔다는것.

中共대표단은 그들의 신분을 대부분 『中國民航總局』으로 통고해왔으나 우리측에선 외교부관계자와 公安관계자들이 상당수 포함될것을 예상, 여러경로를 통해 中共대표단의 신원을파악하기도했다.

우리측 대표단의 한대표는 中共측 회담대표인 許光建이 외교전문가임을 직감, 許에게 미국,일본및유엔문제등에 관한 질문을던지면서 『외교부에 소속 아닌가』라고 슬쩍 물었으나 許는 『民航간부』라고만밝힐뿐 끝까지 자신의正體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

또다른 우리측대표는 中共측통역 蔣正才의 한국말 발음이 북한사람과 비슷해 술자리등 私席에서 『당신은 이북출신아니냐』고 몇차례에걸쳐 질문을 던졌다는것.

매번 북한출신임을 부인해오던 蔣은 8일밤 三淸閣만찬때 또 같은 질문이 나오자 『X선생 난벌써 5~6차례나 같은 질문을 당하고 있소. 난 분명 四川省 출신의 中國人이요』라고 정색을 하더라는 後聞.

○…여객기被拉사건처리를 놓고 韓·中共양국이 覺書를 교환한 것은 새로운 외교관례가 될것이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분석. 그도 그럴것이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未修交國간에 文書를 교환한 前例는 거의 없기때문이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78년 소련의 무르만스크에 불시착 했을때도 韓·蘇간에 아무런 문서교환 없이 이문제를 처리했고, 또 未修交國인 미국과 쿠바사이에서 빈번히 빚어지고 있는 항공기납치사건 처리서도 문서교환이 없다는 것이다.

○…中共측은 이번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부상자와 항공기승무원의 귀국문제는 물론 납치범들의 처벌결과통보문제등을위해 연락창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있는 눈치.

中共측이 특히 만족을표한 우리측 조치는 不時着했을때 피납여객기에서 납치범과 승객을분리, 승객을 먼저 구출한점등이라는것이다.

양측의 이번 직접접촉은 소련을자극, 소련의 對韓접근에 어떤영향을 미치지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돌고있다.

베트남軍 캄보디아에 추가投入

철수한 自國軍교체병력 2천명

【방콕AP=聯合】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일부 철수한것으로 알려진 자국군의 교체병력으로 지난3일 2천명을 새로 캄보디아에 투입했다고 프라송·순시리 타이보안대장이 13일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측이 지난2일 캄보디아에서 일부 철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1천여병력이 사실은 라오스주둔 베트남軍이었다고 주장하고 베트남軍이 계속 캄보디아에 증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감된 네루大生들 교도소서 斷食투쟁

外信안테나

【뉴델리AP=聯合】수감중인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 학생 3백77명 전원은 교도소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13일 단식투쟁을 시작했다고 한교도관이 밝혔다.

네루대학학생들은 지난 11월 부총장과 교직원2명을 3일동안 자택에 연금, 정학당한 학생간부 3명의 복학을 요구하다가 경찰과 충돌, 1천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었다.

경제정상회담 主議題 「失業」으로

亞洲등 勞組간부 레이건에 촉구

【워싱턴=聯合】서유럽및 스칸디나비아, 아시아지역의 노동조합간부들은 13일 레이건美대통령에게 이달말 미버지니아주의 윌리엄즈버그시에서 열리는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실업이 돼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오는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이번 경제정상회담을 주재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서독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등의 정상들이 이에 참가할 예정이다.

日北方 4개島嶼 蘇주둔軍 증강돼

【東京=聯合】소련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방4개도서 반환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이들4개도서에 대규모의 병력을 이동시켰다고前 KGB(소련국가보안위원회)요원 스타니슬라프·레프첸코가 12일 폭로했다.

칠레가톨릭·언론들 "反政시위자들과 和解 모색하라" 정부에 촉구

【산티아고AP=聯合】칠레 가톨릭교회와 주요언론은 지난11일 발생한 유혈반정부시위사태를 국가의 중대위기로 간주, 13일 아우구스토·피노체트대통령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반정시위자들과 화해를 모색하도록 촉구하고나섰다.

산티아고教區長인 프레스노대주교는 이달 성명을 통해 교회는 칠레의 사회적위기를 명백히 표출한 이같은 시위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가 사태악화를 사전방지하기위해 긴급대화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칠레 뉴스報道·해설禁止 示威보도制裁

【산티아고AP=聯合】아우구스토·피노체트 칠레대통령은 13일 칠레의 流血反政시위를 상세하게 보도한 중도계 방송 라디오·코페라티바의 모든 뉴스보도와 해설및회견을금지시켰다고 이 방송국간부들이말했다.

이 간부들은 피노체트대통령과 內相 연리케·몬테로 장군이 서명한 포고령이 이날 발표됐다고 말하고 이 포고령을 어기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포고령은 3개도시에 방송망을 가진 이 방송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방송프로를 음악·스포츠·광고및 정부성명에 국한하도록 명령했다.

메아리

日記

자기의 생활중에서, 스스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말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날의 기록─. 日記란 이런 것이라고, A·비어스의 『惡魔의 辭典』은말한다. 비어스가 비꼰대로 日記가 끝까지 솔직하기는 어렵다. 日記를 써본 사람이면, 그의 풍자를 동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풍자는 어디까지나 풍자다. 寸鐵殺人의 날카로움은 있으나, 그것은 사물의 半面을 말하는데 그친다.

17세기 영국에 새뮤얼·피프스(1633~1703)란 사람이 살았다. 하잘 것없는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연줄을찾아 海軍省에 들어가고, 끝내는大臣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大臣으로서가 아니라, 영국 日記文學의 창시자로 기억된다.

그가 27세나던 1660년에서 69년까지의 전후10년, 그가 남긴 1백20만 단어의 日記는 좀 기묘한 기록이다. 도처에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暗號─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라틴 말을 뒤섞은 國際語를 쓴 때문이다.

이 暗號부분은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말할수 없는」부분이다. 피프스는 暗號뒤에 숨어서 公私의 모든것, 性생활까지를 숨김 없이 적은 것이다.

흔히 『神이여 용서 하소서─』로 시작되는 暗號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피프스는 일요일마다 아내와함께 교회에 출석한다. 어느일요일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옆자리 아가씨께로 다가 앉아 『…손을 잡고 몸을 껴 안으려했다. … 그녀는 자리를 피했다』 또 다른 일요일에는 『망원경으로 … 美人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설교시간을보냈다』 이것이 점잖은 30대 海軍省 사무관의 또한면이다.

그가 海軍省에 들어 갈 무렵, 그를 발탁해준 提督은 이렇게 충고 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것은 봉급 덕이 아니다. 그 地位에 있는 동안 돈벌이할 계제가 생기는 법이다』

이 충고가 옳았음을 그의 日記가 증명한다. 관료로서의 피프스는 곧副收入의 맛을 익힌다.

『나는 뇌물을받고 不正한 거래를 할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힘을써서 그에게 도움이되고, 내 직무도 옳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례를 마다 할만큼 潔癖스럽지는 않다』

덕에, 취직당시 1백20파운드이던 그의 저축은 7년사이 6천2백파운드로 60배가까이늘었다. 副收入은 물론 돈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탁이 들어 온다. 부인네를 동원한 人事청탁도 흔하다. 피프스는 그런 직원의집을 방문한다.

『저녁을먹고 남편은 심부름을 보냈다. 그녀와둘이만 남아서…그짓을 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남편이 돌아와서 귀가했다』 그녀의 청은 물론 들어 줬다. 그의 日記에 非一非再한 사건들이다.

그는 그의 暗號日記를, 그의장서와 함께 모교 케임브리지 大學에 遺贈했다. 그러나 이 日記는 쓰여진지 1백50여년을 지나, 1828년에야 解讀이 됐고, 첫번 출판된내용은 전체의 4분의1분량에 그쳤다. 暗號부분중에 活字化 못할만큼 노골적인 대목이 많았던 탓이다. 그래서 그의 日記 전문은 다시 1백50년후인 지난 70~76년에야 햇볕을 보았다.

피프스日記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중요한 政治史料다. 그러나 日記의 전문이 밝혀진 지금은 오히려 한 평범한 사람의 赤裸裸한 生活기록으로서 더 값이 있다.

그는 日記속에 금전出納을 남김없이 적고, 저축을 매일처럼 다짐 한다. 그는 上司에게 아부하며조심스레 출세의 계단을오른다. 그러면서 宮中의 부패와 상층사람들의 利己心을 한탄한다. 우리주변, 어디선가 본듯한 사람이다.

歷史속의 피프스는 變革期에등장한 새로운 시민계급, 유능한 實務官僚의 한 표본이다. 그러나日記속의 피프스는 한낱 「俗物」이다. 오늘을사는 生活人으로서, 자기마음속의 俗物根性을 인식할수록, 그의 日記를 읽으며 짚이는데가있음은 이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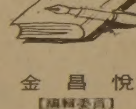
다만 피프스는 「俗物」이로되, 호기심과 기억력이 대단했다. 더하여 대담한 솔직성을 지녔다. 이 特長으로, 그는 歷史를 살찌웠고, 이름을 남겼다.

히틀러의 日記가 발견됐다는 외신을 보았을때의 기대는 이런데도 있었다. 그 역시 「俗物」이었다는 사실의 증명을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그의 日記는 끝내 가짜로 밝혀졌다. 그 실망끝에 이런 생각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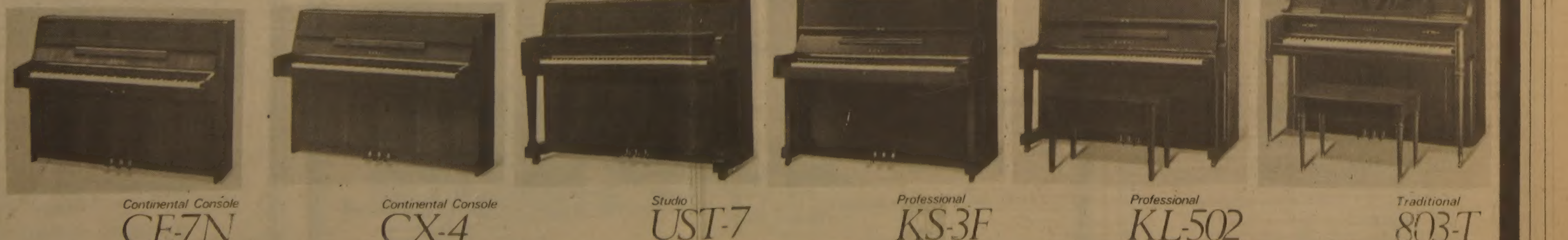
만일에 피프스처럼 호기심과 기억력, 솔직성을 지닌 「俗物」이, 한사람쯤 이땅에 있다면 어떨까. 더구나 그가 官途양양한 實務家라면, 피프스보다야 월등 흥미 진진한 日記를 남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歷史에 이름을 남길만한 그런 「俗物」이, 우리 官界에는 있을것 같지는 않다.



金昌悅【論説委員】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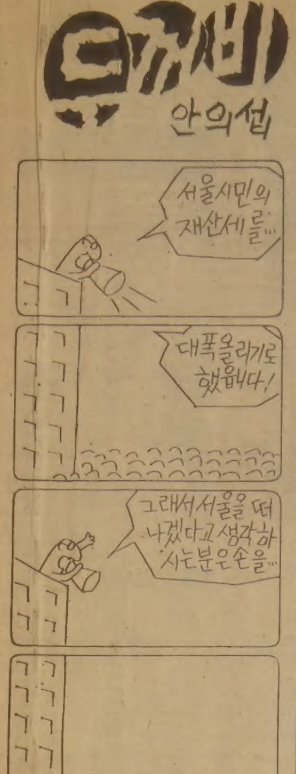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도깨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모범家庭」생긴다

敬老함양·자녀교육 본보기로

내년全國서 2백25家口 선정

내년부터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공인「모범가정」이 생긴다。전국 곳곳에서 선정되는 2백25가구。이 모범가정에서 노인을 제대로 잘모시고 자녀교육을 충실히 해가는 과정을 본보기로 …가는 천인지 구실을 하게 하겠다는게 이제도 마련의 목적. 관계자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라든가 경로사상의 함양을 위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가정당 1백만원씩의 지원금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보사부는 이를위해 이달말 마무리되는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추가시켰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모범가정선정기준도 마련, 가정복지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모범가정을 선정키로 했는데 선정작업은 시·도지사의 추천을받아 내년초부터 시작, 5월8일 어버이날에 맞춰 마무리지을방침이다。

모범가정의 기준은▲82, 83년중 효자·효부 표창을 받은 4백50개 가정을 중심으로 선정하며▲조부모로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여사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되▲가족중 범죄자가 있거나▲문맹이 있는 경우는 제외키로했다。

또 부모중 어느 한쪽이 없음으로써 객관적으로 탈선등 청소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결손가정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모범가정에 대해서는자녀학자금지원으로 1백만원씩 보조해주고 성과를보아 각종지원대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보사부당국자는 이날 모범가정제에 대해『모든 사회적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정의 결함·부재에서 비롯되는것』이라고지적, 모범가정제가 청소년탈선·미혼모발생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사부당국자는 또 이모범가정을 위치적으로 2백25군데 선정할 방침이지만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이보다 줄어들수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任喆淳기자】

6시까지 住民들 대피

피납中共機 오늘아침 非常이륙

【春川=姜秉泰기자】15일 상오7시30분중부전선○○기지에서 이륙할 예정인피납중공 여객기는 일단金浦공항으로 옮겨 재정비한후 금명간 中共으로 돌아갈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지를 이륙할때는 KAL소속 高永日기장(55)이 동승 金浦공항까지의 항로를 안내하게된다。

교통부관계자는 14일 비상이륙시 피납기에 타게될 승무원은 高기장외에 이함공기를 조종할 白景府기장등 중공인7명이 타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春川市는 중공여객기의 비상이륙이 확정됨에 따라 시청에 상황실을설치하고 주민대피등 안전대책을 마련, 14일 저녁湖畔洞등 4개동 반상회를열어대피요령을 시달했다。이안전대책에 따르면 활주로주변반경 3백m이내의 주민4천여명은 15일 상오6시까지 교회、학교、복지회관등에 일시대피하게 된다。

春川市는 또 화학차를 포함한 소방차3대와 앰뷸런스를 활주로 주변에·배치키로하고 도립병원등 5개병원 의료진으로 의료기동반도 편성했다。

비상이륙과 관련, 중공기승객은 14일 金浦공항에들려 공항시설과 정비공장등을 돌아본후 이륙준비를 위해 春川으로 돌아왔다。

피납기가 ○○기지를 출발,金浦까지 가는데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3층서 投身…중태

서울木洞 대낮主婦피살 용의자

서울江西區 木2洞 沈敏子씨(39) 대낮 피살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沈씨의시동생 李鍾延씨(40·서울江西區鹽倉洞 덕수연립 가棟3호)가 14일낮12시20분께 서울 江西區木2洞732의18 신축중인 건물 3층에서 10m아래로투신자살을 기도,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중태다。

李씨는 이날상오 11시30분께 숨진 沈씨집에서 매부 趙모씨(44·경기安養市安養3洞)를 만나『함께 차나 마시자』며 집을나와 신축공사장밑을 지나다 갑자기 3층 공사장위로 뛰어올라갔다는 것。

李씨는 현수 沈씨가 피살된후 자주 사건현장을 배회, 최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李씨가 사건이후 수사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자살을 기도한점으로 미루어 이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크거나 용의자로 몰린것에비관, 자살하려한것이 아닌가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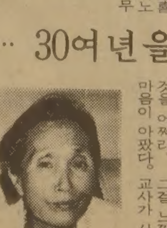
미스코리아들 將兵위문

83년도 미스코리아眞 林美淑양(21)등 미스코리아 입선자6명은 14일 상오 한국일보社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육군○○부대를 예방, 장병들을위문했다。(사진) 이들미녀들은 부대의모범장병들에게 미스코리아 기념메달을 달아주고TV 1대, 선풍기10대, 週刊한국 5백부를 전달했다。

스승의날 勳章받는 金壽喜씨

할머니 선생님

3개월후엔 停年… 30여년을 平敎師로



師道와 敎權을 지키는 일만큼 시급한것도 없다。기회가 있을때마다 이 두가지를 확립하자는 움직임은 있어왔으나 현실은 이와 계속 거리가 멀다。한때 없어졌던 스승의 날(15일)이 되살아나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16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상을 받게된 서울中臺국교교사 金壽喜씨(65·사진)는『교사가 교사노릇을 잘했다고 상을 받는것이무슨 대단한 일이냐』며 고개를 흔든다。

정년을 3개월(8월) 앞두었는데도 평교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데가 있지만 전혀 지난온 길을 내세우려 않는점도 유별나다。그녀의 표정에선 상을 받는 것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는 걸 의미해 서글퍼하는 빛을 읽을수가있다。

황해도 載寧의 부농집안의 1남2녀중 막딸로 태어난 金씨는 명문 平壤西文高女를거쳐 京城女子師範강습과를 졸업한뒤 1937년 경북星州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결혼하면서 잠시 교단을 떠났으나 51년 서울梧柳국민학교에서 재출발, 그동안 한번도 결근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의 잿더미속에서 재출발했지만 보람은 있었다。폐허는 어린이들이 재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사회도 어려운속에서도 교사를 따뜻이 맞아주었다。

그러나 세월따라 사회의 교사대우도 師道도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어쩌랴。그걸 느낄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교사가 사명감을 잊고 하나의 기능인처럼 변해가는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왔다。

金씨는 지금도 2학년담임을하고있다。학생들은「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른다。학교에선『힘들면 쉬시라』고도한다。어림도 없는 소리다。

『모든교사들이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시켜주어야하고 교사들은 평생을 공부한다는 자세를 지녀야합니다』金씨는 어려운 말을 쉽게하는 인생의 교사이기도하였다。【方汶俊기자】

"「半自由」의 李喆洙씨에 「완전한 自由」를…"

5번째 한국에 온 救命후원회회장 在美변호사 柳在乾씨

명 변호사 페리·메이슨이 나타날수 있는 사회, 나타날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인권이 가장 신장된 나라인 하면 자기를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것이 미국사회 이기도 한것이다。그 미국에서 최근 한사람의 名辯護士가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재미 한국계 변호사 柳在乾씨(46)。아마도 유명한 재미교포 李喆洙씨 구명후원회장이라해야 구면인듯 느끼는 사람이 많을듯 하다。

"마지막「法廷투쟁」同胞단결 절실"

◇동포어린이와 즐거운 한때
동포어린이를 무등을 태우고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半自由人 李喆洙씨。

柳씨는 센퀜틴 교도소 가스사형실 문턱까지 올라섰던 李씨의 결백을 규명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사람。

77년10월 처형을기다리는 李씨를 옥중에서 처음 만나 그가 구명운동에 착수한지 벌써 6년째이며 오직 李씨구명에도움을 얻고자모국땅을 밟은건만 이번이 벌써5번째다。

李喆洙씨의 근황을 물었다。

나이30에도 아직 청소년 모습그대로인 李씨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인인력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다고했다。새로 이민온 동포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시키는 그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10년가까이 복역생활에서 스민 검은냄새를 지우고 자유인으로 착실히 탈바꿈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률상 李씨는 아직 半自由상태。보석은 됐으나 오는7월11일 옥중살인부분(제2사건)의 結審에서 완전한 자유를 따내어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李씨는 지난3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던날『고국에 달려가보고 싶다』고 털어놓았지만 그런 염원은 結審결과를 두고봐야 실현여부가 가려진다。

「半自由로 부터 해방」—이런 마바지 숙제를 안고 柳씨는 모국을 다시 찾은것이다。柳씨는 이번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당초 李씨를 감옥으로 보냈던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제1사건)에서 무죄가 증명된 이상 부당한 옥살이 도중에 벌어진 사건。그것도 정당방위를 하다가 저질러진 사건(제2사건)은 당연히 무죄라는 柳씨의 확신은 철석같다。

그 확신은 그러나 법정차가 증명해주어야한다。검찰이 항소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한 대결은 피할도리가 없다。검찰은 李씨에게 누명을씌우느라고 이미 귀중한 납세자의 돈 50만달을 헛되이 날려보냈다는 汚名을 뒤집어쓰고 있는만큼 전혀 후퇴할 눈치를 보이지않는다。

柳씨에 의하면 구명후원회는 현재 세갈래 전법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하나는 李씨를 10년가까이 무고한 옥살이를 시키고도 또 다시 50만달러나 들여 재판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10만명 서명을 받는 작업이다。세금을 내는 소시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이운동은 지난해 가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막바지 법정투쟁에 동포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柳在乾씨。그는 미국사회는 李喆洙사건을 통해 우리동포들의 시민의식을재는 시금석으로 지켜보고있다고 했다。

소수 民權침해 다시는 없게

李씨 샌프란시스코 韓人會 인력개발원 근무

英語교습·직업훈련시키며 착실한「새삶」다져

둘째는 국가기관이 소시민보호를 게을리함으로써 비롯된 과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는 도덕 캠페인이다。친지의 집에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집에서는 보험으로 수습하는 냉철한 합리성이 어째서 교도소라는 국가기관에서만 예외일수있느냐는 문제제기다。제1사건이 없었더라면 옥중 제2사건은 일어나지않았을 것이라는 뜻에서「BUT FOR」이라는 구호가 붙은 이 캠페인은 주로 검찰당국에 항소취하를종용하는 편지쓰기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겨운운동이 이번재판비용을 모금하는운동。李씨 보석금으로 이미 전재산을 공탁한 柳씨는 李씨의 법정투쟁을「전투」에 비유했다。

변호인이 보병이라면 심리전은 언론이맡고 재판비용을 대는일(병참)은 모금에 의존할수밖에없다。

언론의 힘을얻어 李씨사건이 소수민족 민권투쟁의 성격으로 발전되자 李씨를 법률적으로돕겠다고 나선 동양계 변호사는 한국계만도 10명이나 된다。일본계인 야마다·탐교여사와 돈 다마끼씨、중국계인 윌프레드·림씨、마이클·리씨등이 바로그들이다。

재판이 열릴때마다 모습을드러내는 이들은 같은 소수민족으로서 공통된관심을 강조하는 상징적 효과가 더컸다。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직도 와인클래스級의 백인중신 대가를 변호인으로 여럿 선임해야한다。또 전원합의제인 12명배심원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리게하려면 또다시 미국전역에서 유력한 증인들을 불러다주고 다른증거를 보완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해 柳씨가 추산한 비용은 약12만달러。현재 미국내에서 汎교포 모금운동을 벌이고있지만 아직은 태부족。지금까지 국내에서 5년째 모금에 앞장서온 가정법률상담소(소장 李兌榮)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金유숙)에대해 몸시 고마와하는 柳씨는 다시 호소하고 있다。

『또다른 李喆洙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수 있읍니다。동포끼리 힘을 모아 기필코 이기도록 밀어 주십시오』【金炳武기자】

金부총리집 窃盜 趙世衡 추가起訴

서울지검은 14일 大盜趙世衡의 金부총리집에서 훔친 유가증권5억1백52만여원의 절도사실을 추가기소했다。

당초 검찰의 공소장에는 金부총리집 도난액이 귀금속등 7백34만5천원상당으로 적혀있었으나 최근 5억여원의 피해품이 더있었음이 밝혀짐에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趙에대한 공판은 16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盛晩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日北九州市서"告發"통고

指紋날인거부 崔昌華목사가족

【東京=聯】일본의 기따규우슈(北九州)시는 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한국교포 崔昌華목사(53)와 그의 두딸을 고발하기로결정했다。

기따규우슈시는 13일까지 崔목사와 장녀善惠양(23)、2녀 善愛양(17)이 해당區廳에 출두, 지문을 찍지않을경우 14일 정식으로고발하겠다고 통고했다。

기따규우슈시가 지문날인 거부자를 고발하기로결정함으로써 고발사태가 다른 도시로도 확산될것이확실하며 일본의 지문날인거부사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될것 같다。

美貨 30장 더발견 감정의뢰

釜山위폐 換錢사건

【釜山·大邱】속보=미화 1백달러짜리 위폐사건을 수사중인 釜山 中部경찰서는 14일 위폐를 훔쳤다는 대구시 北區 大賢洞 소재 大邱모자점주대 이사장 金모씨(66)집 금고속에서 위조지폐로 보이는 1백달러짜리 미화 30장을 추가로 찾아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聯】

한국최초 法務法人「大洋사무소」인가

법무부는 14일 方順元변호사등 원로변호사 5명이 설립, 인가신청한 우리나라최초의 법무법인 大洋종합법률사무소(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4街友林빌딩3층)를 인가했다。

법무법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변호사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소속변호사들이 민·형사 국제거래 공해등 전문분야를나눠맡아 법률서비스의 질을높이기 위한것이다。

西江大生 2명拘束

反政府 유인물뿌려

서울 麻浦경찰서는 14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西江大생 李尙愛양(22·국문과 4년)과 安永姬양(22·독문과 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이들은 지난11일 낮12시10분께 학교 R관 3층에서 로프로묶은 감고창틀에걸터앉아 메가폰으로『종업정원제 폐지하라』는등구호를 외치고 반정부 유인물 1백50여장을 뿌리며 학생들에게 교내시위를 선동한 것이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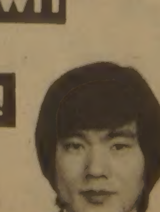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W
(크리스티×불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동래 고보 중고교
신춘을 맞아 동래중고교 동문회 발족및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6월하순)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성래 439-6717
김문고 889-8290
최우현 243-0267
망월회 재캐나다지구동래중고동문회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 6

世紀的인 해프닝 「히틀러日記」 소동

◇가짜 히틀러日記의 봉변 3役 (上)중개한하이데만기자 (中)引責사임한 슈테른誌 코흐편집장 (下)眞品으로 오판했던 역사학자 트레버·로퍼

종이·잉크 죽은뒤의 製品…날조判明

열쇠쥔 提供者「피셔」는 체코로 도주

兩獨聲明戰속에 新나치즘 造作說도

30億원주고 산것

진품이라던 히틀러의 일기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끝에 날조된 것임이 판명됐다.

기독교신학자들의 연구진로를 바꾸어 놓았던 死海文書발견이래 최대의 역사적사건이 될뻔한 일이 그만 세기적장난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眞僞논쟁을 불러 일으킨 히틀러의가짜 진필 일기는 연방범죄수사국과 연방문서보관소、연방자료조사소의 전문가를 동원한 서독내무성의 조사로 날조된것임이 드러났다.

모두 62권으로된 히틀러의 일기는 1932년 6월27일부터 그가 자살하기 5일전인45년4월25일까지 13년동안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돼있었으나 일기에 쓴 종이와 잉크가2차대전후에만들어졌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2년반동안 자그마치 9백만마르크(약30억원)를 투입, 이 가짜일기를 입수한 슈테른誌는 담당기자 하이데만과 편집책임자 2명을 파면하고 위조범색출을 비롯한 사건수사를 검찰에 맡겼다.

東獨관련에 焦點

조사를 위탁받은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이 사건이 동독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여부에 맞추고 있다. 동독은 과거 서독과 그 우방국의 이간을 위해 전쟁에 관한 불유쾌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짓문서들을 이따금 교묘하게 유포해왔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흑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일기가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못지않게 히틀러의 복권을 노리는 新나치즘의 각본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일기의 내용은①히틀러가 유태인 학살과 관련이 없다②情婦에바·브라운을 극진히 사랑했다는등 히틀러의 윤리성과, 다감한 인간성의 단면을 은근히 부각시켜준 대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슈테른誌가 자체조사결과 사건에 정치성은 없는것 같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단호한 태도로 이 점을 파헤칠 결의에 차있다.

과연 히틀러의 일기는 어디의 누구에의해 날조됐을까. 사건은 파고들수록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이데만 前기자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입을 다물어온 가짜 일기의 입수경위를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의 일기는 동독출신 피셔 (또는 쿠야우)라는 인물로부터 매입했다. 일기를 건네주면서 쿠야우는 이 일기의 배후가 동독장성들이고 더 깊숙이거슬러올라가면동독국방성이라고말했다.

알쏭달쏭한 出處

쿠야우란 인물은 50년대 후반 서방으로 넘어와 서독 슈투트가르트에 밀리타리아란는 상호의 고물상점을 차려놓고 구식무기 메달 각종 깃발등 나치 유물들을 판매해왔다. 그는 어떤 경로로 구입했건 나치군 원수 괴링의 진짜 제복도 갖고있다.

쿠야우는 히틀러 일기의 전질을 한꺼번에 건네주진 않았다. 한권 한권씩 그때마다 돈을 받으면서 2년반동안에 걸쳐 건네주었다.

하이데만은 돈은 처음부터 쿠야우의 손에 넘어갔으며 결코 자기는9백만마르크의 거금을 챙겨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쿠야우의 손에간돈도 아마 다른곳으로건너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데만이 일기의 출처로 밝힌 쿠야우의 상점으로 보도진들이 몰려갔을때 이 나치유물 전문가는 상점문을닫아 걸고 체코에 피신해버린 뒤였다.

일부에서는 하이데만이 말한 피셔가 가공인물일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슈테른社의 한 관계자는 하이데만이 편집장에게 출처를 말할 때 쿠야우를 언급한 일이 없고 피셔라고만 밝혔었다고 지적한다. 그가 출처라고 밝힌 피셔가 쿠야우가 아닐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점에 대해 하이데만의 부인은『쿠야우의 인물을 말하지 않았던것은 남편이 출처를 오로지 피셔로만 알았기 때문이며 조사를통해서 피셔는 틀림없이 나치 유물 거래업자 쿠야우임이 확인 됐다』고 반론을제기했다. 슈테른社도『우리가 착지못할뿐이지 피셔가 가공인물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셔가 진품일기를 건네준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하이데만도 이제피셔에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일기의 소유자에 대해 피셔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고 거의 단정을 내릴단계에와있다.

東獨將星이 入手

피셔는 일기의 입수경위에 대해『동독의 한장성이 1945년4월21일 히틀러의 일기를 옮기다 추락한 나치비행기에서 끄집어내 보관해온 것인데 그는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 싶어한다』고 희대의 스쿠프를 쫓던 하이데만의 귀를 번쩍트이게 하는 말을전했다.

그러면서 그배후는 궁극적으로 동독국방성에서 관여하는 일임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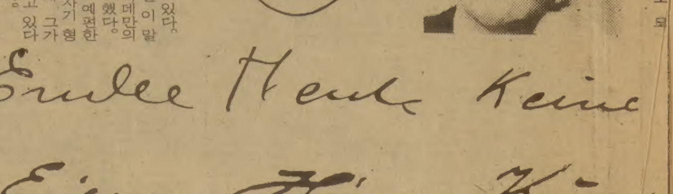
하이데만은 이렇게 사건에 말려들었다.

하이데만은 피셔 배후의 출처에 대해서는더이상 확인할 수없음을실토한다. 동독의 국방상에게 사실의 진위여부를물어볼 수는없는일이 아니었느냐고 말하고 있다.

얼마뒤 피셔는 이 말을 뒤집어 하이데만의 신념을 흔들리게 했다. 출처가 사실은 예편한 동독군 장성인 자기 형 리차드·피셔인데 그가 일기소유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건은 결국 동독정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지경에까지 확대됐다. 동독외무성은 11일 성명을 내고『동독은 가짜 일기 소동을 히틀러를 복권 시키기 위한 사기극으로 슈테른의 관심은 분명히 진실의 전파보다는거짓말로 돈벌이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피셔가 외국에 피신,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가짜일기소동은 동·서독의외교공방전으로 발전해가고있는 것이다. 【崔相鎭기자】



◇히틀러의 필적(上)과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가짜일기의 필적(下)

◇서독 문서보관소간부 한스·붐즈씨(右)와 수사관 루이스·베르너씨가 『히틀러日記는 가짜』라고 밝히고 있다.

◇암살기도사건 직후의 히틀러(右). 이때이후 그의 필적은 몹시 흔들렸다고 가짜日記수자들은 그럴듯하게 설명까지 했었다.

유언장등 가짜遺品 2次대전후 쏟아져

하이데만 81년에 模造권총으로 물의

"東獨조직서 NATO분열위해 量産"

독재자 히틀러가 유언장을쓰고 그의情婦에바·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 자신의머리에 구경 7·65㎜월터피스톨을쏘아 최후를마친 1945년4월이후 그때의 히틀러유언장、결혼증명서、권총이라고 날조된 가짜유품들이 줄곧 전세계의 나치골동품시장에 범람해왔다.

지난81년 서독의 한나치골동품 수집광이 저명한 역사학자 베르너·마저에게 권총을보이며 그것이 바로 히틀러가 자살할때 사용한 권총임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때 그권총고유번호 이름표기등이 모두 날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그수집광이 최근 날조된 히틀러일기로 소동을 피운 서독슈테른誌기자 게르트·하이데만이었다. 그가 얼마나 깊숙이 히틀러의 가짜유품제조조직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이데만의 히틀러 일기사건은 세계를 희롱하는 놀라운것이었지만 이와비슷한 사건은 2차대전후 계속 꼬리를 물어왔고 현재에도 난무하고 있다.

최초의 사기사건은 47년 에바·브라운이 히틀러와 사귀는동안 썼다는 일기가 공개되어 세상이 떠들썩했으나 사실은 루이스·트래커 (일명 브라운)란는 저명한 영화감독이 날조한 것으로 판명되었던것.

73년에는 우익작가 데이비드·어빙이 44년까지 나치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빌헬름·카나리스제독이 썼다는일기를 사들였다. 어빙과 일기를 출판할 영국의 윌리엄·콜린스·선즈출판사는 한서독은행에 12만달러를 기탁하고 카나리스제독이 서명한 12페이지짜리의 발췌문을 조사할권한을 획득했다. 그러나 검사결과 서명은 카나리스가 45년 히틀러에의해 처형된후 서독에서생산된 볼펜으로 쓰여진 가짜임이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또 아우구스트·프리샤이라는 前나치당기록보관위이 어빙에게 8백개의 사진본 나치문서들을 건네줬다. 그가운데는 히틀러가 직접쓴 일기를비롯 41년 루돌프·헤스 나치부총통이 스코틀랜드방문계획에 관해 히틀러에게보낸 편지도 들어있었다. 어빙은 이중 4백장을영국으로보내 정밀검사한 결과 또 속았음을 알았다.

어빙은 이러한 가짜유품이나 슈테른誌의 가짜일기등 모두가 같은 위조커넥션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믿고있다.

역사학자나 전문가들은 나치가짜유품의 주범은 南美의 광적인 나치추종세력으로 보고있다.

南美의 나치조직은 나치문서를 위조、세상에 공개함으로써「아버지」히틀러의 죄악을 호도하고 세계의 관심을 나치시대로 돌아가게하려고 꾀하고있다.

동독의 위조조직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도벌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간을 이간시킬 목적으로 포츠담에 히틀러의 편지 그림 사진등을 위조하는 공장을 차려놓고 유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미국 최대의 나치遺品商인 찰즈·해밀턴은 연간 수천점의 나치유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매달 1~2점의 위조품을 적발해내고 있다. 취급품은 주로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간 사진들인데 眞品일 경우 3백50~1천달러에 팔린다.

가짜사진은 히틀러가 개인전속사진사호프만에게서 찍지않는한 거의 사인을 하진않았던 관계로 쉽게 추적해 낼수있다는 것. 또한 히틀러의 친필이 쓰여진 히틀러의저서「나의 鬪爭」에 가짜가 많다.

위조범들은 가끔 히틀러와 그로부터 책을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혼란,부적당한화려한 문귀를 사용, 가짜임을 들통나게 만들기도 한다.

히틀러의 일기및 유품들이 가짜임이 판명되면 될수록 히틀러의 가짜유물은 더욱기승을부린다.

『眞品은 섹시해 보이는 법』이라고 해밀턴은 말한다. 전세계에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나치품수집가들은 갈수록 나치즘의 망령에 이상스럽게 흥분하고있는것이다. 【崔海雲기자】

성경, 찬송가, 각종 서적 714 Bloor St. W.　종교서관　성화, 성가테입 각종 설교테입 Tel.: 535-1920

교회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판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H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총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알)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8-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섭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10: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423-9880 복음다이알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 (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19 248-161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멘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464 665-22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7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illegible]0 429-2[illegible]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illegible]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illegible]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illegible]4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球場은 싸움터인가

開幕이래 불상사 9件 18명징계 벌금397만원

퇴장·경고·몰수게임등 亂舞

審判권위의식… 事態악화

최대사고는 작년8월 三星·MBC戰

入場料배상 3선수 5게임 出場정지

심판의 미숙한 게임운영과 감독·선수들의 불미스런언동이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얼룩지게하고 있다.

82년 프로야구 개막이래 판정에대한 불만이나 팀간의 충돌로 빚어진 사고와 징계는 9건에 18명, 벌과금은 3백97만원을 기록하고있다.

지난12일 仁川서 벌어진 三美-해태경기도중 발생한 심판사고가 대표적인예. 張明夫의 빈볼로야기된 양팀선수들의 대치상태에서 주심 李日馥씨는 심판의권위를 앞세운 중재로 양팀벤치의 감정을 격앙시켰으며 해태 金應龍감독은 자제심을잃은 감정폭발로 폭언을 퍼부어 금년시즌 감독으로서는 첫퇴장의 불명예를 당했다.

지난해 7월15일 大邱서는 심판판정에 불만을 터뜨린 해태의 趙昌秀감독대행과 金鍾潤·金一權·金城漢·金準桓이 무더기 징계당했으며 8월26일 역시大邱에서 2루스틸을 둘러싼 판정시비로 MBC가 첫몰수게임을 당하고 白仁天감독·金仁植과 朴明雲·金東昴심판들이 징계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소요로 MBC는 무효화된 관중수입2백만원을 배상하고 白仁天역시 1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했다. 白仁天·朴明雲·金東昴등 3명은 소요에대한 책임으로 5게임 출장정지당해프로야구최대의심판사고로기록되었다.

연륜이 짧은 국내프로야구에서는 심판들의 관록과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데다 각구단의 심판에대한 불신이 쌓여 사고의 큰 요인이 되고있다.

심판들은 경기주재자로서 전체경기를 부드럽고 원만히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감독이나 선수들의 사소한언행에 과민한 반응을보이며 먼저 흥분상태에 빠져 지혜로운 사태판단과 수습을 놓치기 일쑤다.

대부분 스타·플레이어로서 화려한경력을가진 감독이나 선수들은 심판들을 경시, 스포츠맨십을 서버리고 그라운드에서 폭언을 퍼붓곤한다.

한국야구위원회는12일사고이후 빈볼에대해 특별히 유의하며 주루시 스파이크를 높이든 주자를 수비방해로 처리한다는등 몇가지 사고방지책을 시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고방지는 심판들의 대범하고 슬기로운 경기운영 감독·선수들의신사적인경기매너가 갖춰지기전에는 바라기 힘든과제다. 【方鍾甸기자】

◇프로야구 사고 내용

날 짜	이 름	벌 금	비 고
82·6·12	金武寬(삼 미)	2만원	퇴장
6·13	金文熙(롯 데)	3 〃	〃
7·15	趙昌秀(해 태)	10 〃	
	金鍾潤(〃)	5 〃	퇴장
	金一權(〃)		경고
	金城漢(〃)		〃
	金準桓(〃)		〃
8·4	金漢根(삼 성)		퇴장
8·17	金鍾潤(해 태)	10만원	〃
	金容允(MBC)	〃	〃
8·26	MBC 구단	200 〃	몰수게임
	白仁天(MBC)	100 〃	5G정지
	金仁植(〃)		퇴장
	朴明雲(심 판)	15 〃	5G정지
	金東昴(〃)	20 〃	〃
9·13	金德烈(롯 데)		경고
83·5·1	柳志烜(O B)	2만원	퇴장
5·12	金應龍(해 태)	10 〃	〃
	李日馥(심 판)		주의

金鎭雨 굿바이 滿壘홈런 9회末

三美, 해태에 극적역전승 先頭탈취 9-5

三星홈런3방 OB잡아 11-3

롯데, MBC제압 4位로 7-5

83년 프로야구 전기우승의고지를 선점하기위한 곡사의 결전에서 삼미 슈퍼스타즈가 승리, 14승 9패로 12승1무8패의 해태를 승률9리차로 누르고 흑구장에서 선두를 탈취했다.

14일 인천서 벌어진 해태-삼미간의 3연전 2차전서 삼미는 9회말2死만루에서 4번 金鎭雨가 해태구원투수 李相潤의 제2구를 통타, 좌월만루굿바이홈런을 날려 9-5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삼미로서는 모험을건 한판이었다. 12일 바로앞 경기서 에이스 張明夫를 기용, 해태타선을 7안타로 막아 반게임차로 쫓아간여세를 몰아 삼미는 홈구장서의 선두 탈환을위해 또다시 張明夫를 완투시키는 도박을 걸었다.

경기에 앞서 張明夫의 연속 강판을 눈치챈 해태는 張의 타구를 적극공략, 2회초 집중 3안타로 2점·3회초 3번 金準桓의 좌월 2루타와 4번 金奉淵의 우월 2점홈런등으로 난타, 2점을 얻는등 5회까지 9안타로 5득점, 5-3의 우세를 지켰다.

노련하고 대담한 張明夫는 초반 꾸준히 얻어 맞으면서도 타선의 성원에 힘입어 6회부터 특유의 기교도 되살아나 해태타자들을 농락하기 시작했다.

삼미는 6회말 연속3안타로 해태선발 朱東植을다운시키며 5-4로 뒤쫓았고 7회말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한 李英求를 李相潤의 폭투와 2번 朴俊英의 중전적시타로 살려 5-5의 동점을 만들었다.

역투하던 해태의 李相潤은 9회말 삼미 선두 8번 諸興權에게 좌중월 2루타를 얻어맞고흔들리기시작, 9번 李英求를걸리며 2死만루로 쫓기다 4번金鎭雨에게 통한의 결승만루홈런을 맞았다. 張明夫는 12게임에 출장, 8승3패1세이브를 기록했으며 金奉淵은 시즌9호홈런으로 홈런더비1위에 올라섰다.

三星은 청주원정경기서 6개의 홈런을터뜨리며 OB를 11-3으로대파했다.

롯데는 홈경기서 朴鍾成의 8회말 결승홈런등으로 MBC를 7-5로 제압, 4위로 올라섰다.

◇중간순위 <14일현재>

	승	무	패
①삼 미	14	0	9
②해 태	12	1	8
③O B	13	0	11
④롯 데	11	0	14
⑤M B C	11	0	15
⑥삼 성	9	1	13

◇14일전적

해태 022 010 000-5
삼미 120 001 104-9

▲홈런=金奉淵(3회·2점) 金準桓(5회·이상해태) 李英求(2회·2점) 金鎭雨(9회·만루·이상삼미)

◆부산

MBC 201 100 010-5
롯데 110 030 02×-7

▲홈런=鄭永基(8회·MBC) 鄭學守(2회) 朴鍾成(8회·이상 롯데)

◆청주

삼성 010 013 222-11
O B 003 000 000-3

▲홈런=張孝祚(2、9회) 咸學洙(6회·2점) 朴承昊(7회·2점) 金鍾錫(8회·2점) 李萬洙(9회·이상삼성)

골러시… 한게임 6골

할렐루야-油公 대격전끝에 또 無勝負 3-3

【釜山=安奉煥기자】할렐루야와 油公은 난형난제인가. 한게임서 6골이 터져도 승부가 나지않았다.

할렐루야와 油公은 14일 釜山구덕경기장에서 열린 슈퍼리그지방순회경기서골을주고받는 대격전끝에 3-3으로비겨 개막전에 이어 또다시 무승부를기록했다. 이로써 할렐루야는 1승2무, 油公은 3무를 기록했다.

3만여명의 관중이 그라운드를 꽉메운가운데 펼쳐진 두프로팀간의경기는 종반까지 박진감넘치는 열기를 내뿜었다.

신생프로 油公의 朴潤基는 이날 전후반1골씩 2골을뽑아 슈퍼리그 개막이래 3골로 최다득점을 올리고있다. 두팀은 18일 馬山에서 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6월4일) 출전 티켓을 놓고 한판승부를 벌인다.

양팀은 경기초반부터 열전을 벌였다. 吳錫載를 공격중앙에세운 할렐루야가 선제골을 따냈다. 전반 25분 우측터치라인을타고 깊이공격하던 李康錫이 페널티에리어 가운데로 센터링한것을 吳錫載가잡아 왼쪽으로 밀어주자 金鳳翮이 가볍게 밀어넣었다.

선제골을 뺏긴 油公공격은 더욱강해졌다.

짧은 패스와 속공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던 油公은 전반 32분 朴潤基가 金鏞世의 도움을받아 논스톱으로 슛, 동점골을 뽑았다.

할렐루야는 전반40분 吳錫載가 패널티에리어 우측서 油公수비의 패스를 차단, 슛을 날리자 油公GK가 볼을 잡았다가놓쳐 朴成華가 추가골을 뽑았다.

전반은 할렐루야가 2-1로 앞선가운데 끝났다.

油公이 후반13분에 동점골(金鋼男)을 터뜨리자 할렐루야는 26분 吳錫載가 다시 한점을뽑아 3-2로 앞섰다.

할렐루야는 이때부터 수비에 치중했으며 油公은 전원공격 전원수비로 작전을 바꾼후 후반30분 朴潤基가 헤딩슛을성공시켜 3-3을 만들었다.

◇제3일전적

할렐루야 3(2-1 1-2)3 유공
(1승2무) (3무)

趙鍍衍, 漢陽大 조롱

3안타만 허용 圓光大 감격의 決勝올라

복병 趙鍍衍의 圓光大가 漢陽大를 잡았다.

그것도 11-4의 대승으로 17회 대통령기 대학야구의 최대이변을 일으켰다.

圓光大의 좌완 에이스趙鍍衍은 활화산같은 漢陽大의 타봉을 2회이후 3안타로 눌렀다.

圓光大는 4명의 漢陽大투수진을 16안타로 무너뜨렸으며 漢陽大는 모두 8안타를 때렸다.

14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준결승전에서 圓光大는 금년백호기우승으로 아마야구정상에오른 漢陽大를 꺾어 창단5년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승전에진출, 延世大-東亞大승자와 대통령기 패권을 다투게됐다.

『실력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낫지만 趙鍍衍이신들린듯이 던져대면 물림수도있죠. 우리선수들에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일러줬습니다』 경기전날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던 漢陽大 裵星瑞감독의 기우가 그대로 나타났다.

1회말 선발투수 元雄載가 2안타를맞고 漢陽大에 1점을빼앗긴 圓光大는 2회초선두 6번 曺在煥부터 포문이열리기시작했다.

이어 7번金滿后 8번 朴聖鉉까지이어진 연속3안타로 동점을 이루고 수비의에러, 3번 金京洙의 2루타로 3-1로 전세를 뒤집었다 여기서 漢陽大는 수 金勇權의 적루로 다시 1점을 추가, 2회에서만 4점을 올렸다.

圓光大는 3회초에도 2회와 똑같이 6번 曺在煥부터 연속3안타가 터지고 만루에서 漢陽大 1루수의 홈악송구까지 겹쳐 3득점, 승리를 굳혔다.

◇준결승전

원광대 043 100 012-11
한양대 120 001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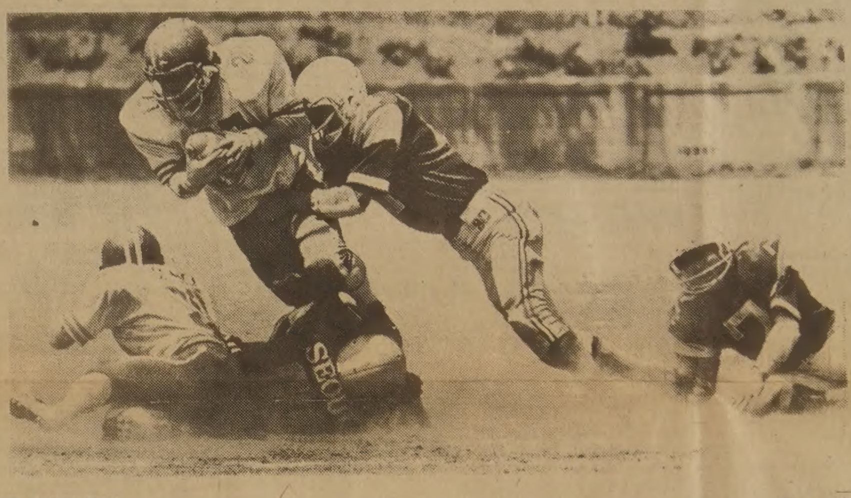
男女 모두 4強진출

스칸디나비아 오픈卓球

한국남녀탁구팀은 13일 덴마크 로스킬드에서 개막된 금년도 스칸디나비아주니어오픈탁구대회 첫날모두 4강의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14일 협회에 알려왔다.

李桂仙·金仁順으로 구성된 여자A팀은 예선리그에서 이스라엘·아이슬란드·덴마크B팀을 각각 3-0으로 완파하고 조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서 西獨A팀과 대결하게 됐으며 金英美·崔鍚玉이 활약한 B팀도 4연승으로 예선조1위를 차지, 蘇聯과 결승진출을 다투게됐다.

남자A팀역시 예선에서 3연승을 거두고 조1위를 차지한후 준준결승에서 홀란드를 3-2로 제압, 蘇聯과 준결승에서 맞붙게됐다.



◇延世大TB육동원(흰27번)이 중앙돌파를 시도하다가 서울大 수비선수들에게 태클당하고있다. 延大가 26-6으로 이겼다.

10년만에 競步경기

오늘上午 汝矣島서

경보(競步)가 올해 전국체전부터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됨에따라 10여년만에 부활, 15일 공식경기를 갖는다.

서울시 육상연맹은 15일 상오9시 汝矣島강변도로에서 3천3백여 남녀선수가 출전한가운데 3㎞, 5㎞, 10㎞등 3종목 레이스를 벌인다.

경보선수를 육성발굴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서울경보대회는 남일반부·남고부·여일반부(여세이상)는 5㎞경기를, 여중부는 3㎞레이스를 벌이게 된다.

韓·中·日 여자농구 信用保證기금 출전

【臺北=CNA=聯】 信用保證基金 여자농구팀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臺北시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한국·臺灣·日本 3개국 초청농구경기에 출전한다.

臺灣의 中華·光華팀과 日本의 상승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海外토픽

"연료부족상태서 航路변경 乘客살리기위해 비상着陸"

中共機기장 會見

韓國에 不時着했던 피납중공여객기의 機長 王以軒은 13일 납치주모자 卓長仁이 비행할로에 계속 간섭하여 여러차례 여객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新華社통신은 王以軒이 이날 회견을 통해 卓長仁이 1시간이상 여객기조종에 간섭함으로써 여객기는 공중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갈피를 못잡고 흔들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王은 당시 여객기의 연료가 부족한데다 납치범들이 기체를 파괴하겠다고위협해 자신은 활주로가 너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상착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王은 『나는 기체가 파괴됨으로써 모든 탑승객들을 죽게하느냐, 아니면 승객들을 구해야한다는 양자택일을 하지않을수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王은 또 『항로를 바꾸라는 위협을 받았을때 착륙해야할 지점의 지형이나비행장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있지 않았으며 여객기는 곤경에 빠졌고 승객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왔다』고 말했다.

王은 납치범들이 순식간에 조종실의 문을 총으로 쏴서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말하고 통신원 王永昌이 납치범들과 협상을 벌이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때오른쪽다리에 총을맞았다고 밝혔다.

新華社통신은 납치범들을 몰아내기 위해 항법사 王培富가 막대기를 사용하려하자 납치범들이 두번째로 무릎에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항법사 王은 납치범들이 승객들의 생명에 전혀신경을 쓰지않았으며 다른승무원들이 부상당한 두 동료를 돌보는것조차 방해한비인간적인 살인마라고 말했다고 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다른 中共언론보도들은 승객중의 한 의료원이 부상승무원들을치료했으며 승무원들은 두 부상자를돕히기 위해 뒷좌석 두줄을 비워주었다고 말했다.

기장 王은 납치범들이자신과 和長林조종사의 머리에 총을 겨눈채 여객기고도를 낮춰 항로를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여객기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AP】

高麗大 3년만에 頂上

초반부터 맹공 成均館大 완파 20-8

춘계 美式축구

高麗大가 춘계전국대학미식축구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 3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14일 럭비구장에서 벌어진 대회최종일경기에서 高麗大는 成均館大를 20-8로 대파, 延世大와함께 3승1패를 기록했으나 승자승원칙에의해 우승을 차지했다.

高麗大는 다양한 작전으로 승리했다. 전방 패스로 成均館大 라인들을 현혹시키다가 측면 또는 중앙돌파로 초반부터 게임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갔다.

첫쿼터 1분을 남기고 FB 이득훈이 측면을 뚫어 6점을 선취했으며 2쿼터서도 18분께 이득훈이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 高麗大는 초반 승세를 굳혔다.

세계최소 高感度카메라 개발

日소니社, 무게百16g… 야간감시용

일본의 유명한 전지제품 메이커인 소니사는 촛불과 같은 미약한 불빛에의해서도 기능을발휘하는 세계최소의 초고감도흑백카메라를 개발했다.

이 신형카메라의 무게는 1백16g(전지가 없는상태에서)에 불과하며 크기도 가로·세로·높이 각각 3·1×1·7×4·4㎝밖에 안된다.

소니측은 이 카메라가 류의 측정 수중탐색 야간 자동통제및 각종 산업기계 감시등의 목적에 사용되며 재래의 진공관식 TV카메라보다 충격에대한 내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AP】

11일 地球近接혜성 전염병유발 가능성

지난11일 지구에서 5백만㎞거리까지 접근했던 혜성 이라스·아라끼·엘코크는 지구대기상에 치명적전염병을 유발할수도있는 미생물을 퍼뜨려 놓았을가능성이있다고 영국의 한교수가 13일주장. 【UPI】

누드모델경력 理由 뉴욕市, 女警官해고

뉴욕경찰의 공중도덕전담반의 한 여경관이 포르노잡지의 선정적인 누드사진모델로 출연했었다는 이유로 11일 해고됐다.

로버트·머과이어 경찰부장은 시벨라·보르게스양(25)이 직업적·개인적 신분과 어울리지않는 행위를하여 해고되었다고 말하고 그녀가 누드사진 촬영시 간단한 포즈를 취했었디라면 사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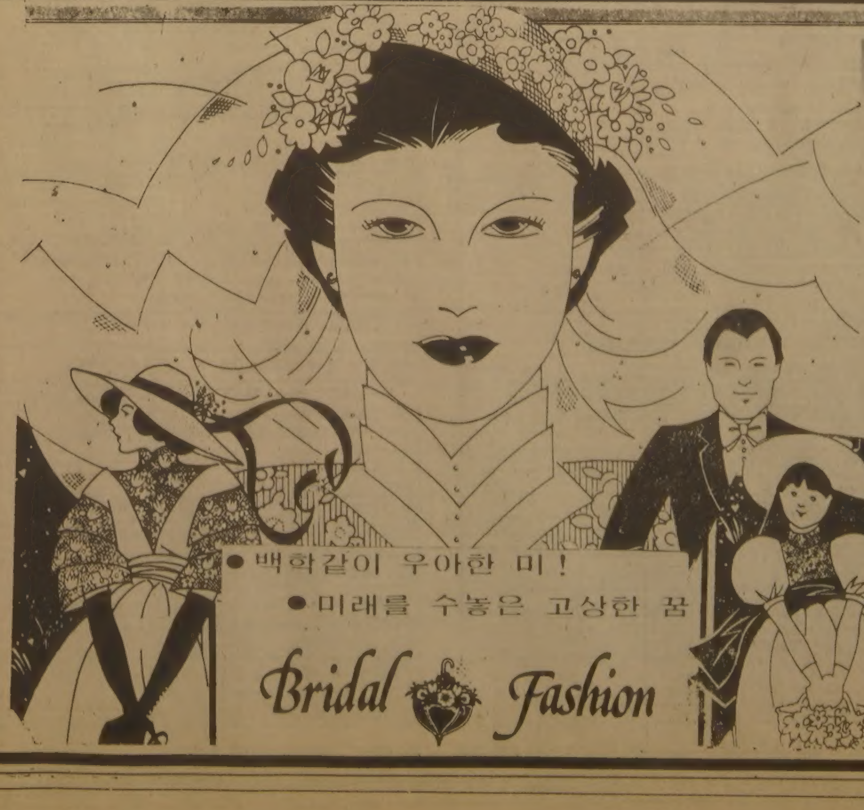
슈테른誌 기자들 編輯室 점거키로

「히틀러日記」관련

서독시사주간 슈테른誌의 기자들은 13일 슈테른지가 가짜 히틀러일기를게재한뒤 단행한 요직개편에 항의하기위해 편집실을 점거키로 결의했다.

슈테른지 기자들이 이곳 통신사들에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이같은 결의는 이잡지의 기자와 편집인 2백명중 약1백6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AP】

◇리용市長과 獅子 프랑스의 리용에서 열리고 있는 서커스에 리용의 프란시스·코롱브市長이 獅子우리 안에서 시민들에게 人事말을 하고있다. 【키스톤=聯】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입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주말출장 자동차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3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세(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Dishwasher 급구함
월~금(AM11:30~PM2:30)전화문의는 2:30이후 요망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1,000마리에 $25
전화 : 766-8876

유경험자 가게헬퍼 구함.
전화 : 741-1465.

카페테리아에서 일할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직접 내방요 (오후2시~5시사이)
96 Spadina Ave. (At Adelaide)

◆급구◆ 파트타임 가게헬퍼. 운전할 수 있고 West쪽에 살고있는 남자학생을 원함.
전화 : 622-8516.

영문타자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실 성실한 여자분.
연락처 : 767-1702(오후7시~9시사이만)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주말 버라이어티 스토어
캐쉬어 구함(Etobicoke 지역)
전화 : 231-7944(가능한한 오전중 연락)

스토아 헬퍼 구함.
7일간 풀타임. 남자원함.
전화 : B)466-3995.

Full Time Helper 구함.
젊은 남자분.
전화 : 763-2980. 762-1572. R)769-9854.

구 직

Store Manager가 필요하십니까?
성심껏 일해드리겠읍니다. 다년간 각종의 Store에서 Manager 경험 있음. Mr.박 530-1838 오후6시이후 요망.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턱숍매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버라이어티가게 매매(건물포함)
가족비지네스로 적당.
버링톤지역 전화 : 1-639-7322(Mrs. Best)

---

1)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5,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2)Fast Food
Bloor & Yonge의 바쁜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3)Fish & Chips-Bargain!!!
주5일(35시간) 영업. 일, 월휴업.
Rent $750/month ; 주매상 : $4,500이상(일요일도 영업시엔 $1,000이상 매상가능) 35석.
Fish & Chips 와 Coffee만 취급.
Take out 함. 월순수입 $8,000이상
가격 $139,000(All Cash Only)
현싯가보다 훨씬 싼 가격이니 이 좋은 기회를 먼저 잡으십시요.

SINCERE REALTY 채준성(David Chae : B)497-8900)

성업중인 마켓 건강상 팝니다.
토론토에서 유일한 Beach Area.
주매상 $7,000. 여름철엔 $13,000
2038 QUEEN ST. E.
전화 : 690-6572 (경마장 동쪽-I.G.A.옆)

버라이어티가게 개인사정상 급매.
살림집 포함된 전망 밝은 가게.
자세한 내용은 왕림하셔서 확인바람.
주매상 $3,000. 많은 권리금 기대치 않음.
230 Ontario St. St. Catharine, Ont.
전화 : 1-685-5863

위치좋은 장소에 있는
아이스크림 도나스 숍 매매
전화 : 466-3995 Asking Mr. Lee

Yonge & Eglinton 좋은 장소에 있는 레스토랑.
리스 길고. 76석. (L.L.B.O.)라이센스 있음.
전화 : 483-3831 Mr. Bill or 484-0921 Mr. Lee

전망좋은 빵가게 매매
276 Dundas E.
전화 : 961-2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리·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

1) 드라이 크리너 매매.
좋은 장비. 매우 좋은 수입.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아스킹 : $13만5천.
2) 레스토랑 150석. L.L.B.O.
좋은 리스. Banquet Eat-in, Take-out 써비스.
아스킹 : $82,900.
Mercury Realty Ltd.
전화 : 492-9031. Waymond Tam.

드라이크리닝(Depot) 매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건물포함)
주매상 $6,0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 딸린 건물매매
#25,9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리스 5+5년.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0-0539(오전9시-오후9시)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아스킹 3만5천+스탁. 리스 2½+5년.
Rent 월 $500. 주매상 $3,500보장. Video 머신있음.
전화 : 469-1521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uck Shop 매매 (옥빌지역)
년매상 17만불. 권리금 290,000+스탁.
연락은 오전10시30분 이전 또는 저녁8시이후 요망.
전화 : 844-5719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피아노, 소파, 디쉬워셔, 월유닛 매매원함.
전화 : 661-4581

도시생활에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밝은 공기와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해답이 있읍니다.
써비스 스테이션-레스토랑-New 3 bedroom home
1/2 Million in Sale. asking : $22만5천
전화 : 705-636-5952(오전10시~오후4시)

매트리스가게 매매. 낮은 렌트.
가게가 크고 전조지하실 있음. Bloor & Christie
전화 : 531-1730(오전10시~오후2시) or 656-5765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세탁소와 2개 아파트 딸린 건물 매매
전망 좋은 사업체
킹과 더프린 지역 전화 : 638-0781

그로서리 Store 매매. 주매상 $7천($1만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50Km. 전화 : 1-852-7907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은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충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센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O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O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발행 2 주년기념

항상 꿋꿋한 자세로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기사로

한걸음 앞서가는

토론토 한국일보

교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탁 합니다

---

*최고의 진미 *저렴한 음식값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한국관